DEVELOPING WHOLENESS IN POSTCOLONIAL KOREAN-AMERICAN CHRISTIAN IDENTITIES: THE CASE OF KUMRAN METHODIST CHURCH IN SEATTLE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Kwang-Kyun Kim

May 2020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Kwang-Kyun Kim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Namjoong Kim, Chairperson
HyeRan Kim-Cragg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20

ABSTRACT

DEVELOPING WHOLENESS IN POSTCOLONIAL KOREAN-AMERICAN CHRISTIAN IDENTITIES: THE CASE OF KUMRAN METHODIST CHURCH IN SEATTLE

by

Kwang-Kyun Kim

This research was motivated by my experiences as pastor of a Korean Methodist Church, currently serving a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congregation in the U.S. As I offered pastoral care within my congregation, I observed a great deal of identity confusion and conflicts among Korean-American Christians. Through this study, I wanted to examine whether Korean immigrant churches, including my own church, were reinforcing or addressing these problems.

For this purpose, I planned a qualitative research project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lected church members from diverse backgrounds in terms of age, gender, terms of U.S. stay, terms of church membership, dual-language proficiency, and type of employment in the U.S. I analyzed the interview results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Analysis of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oppression of othering" underlies Korean-American Christians' identity confusion and conflict. I was able to identify four negative components inhibiting Korean-American Christians from developing a positive identity: exclusiveness, inferiority, uniformity and passiveness.

Then, I looked into some of the major principles and concepts of the postcolonial perspective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presenting a positive Korean-American Christian identity through this perspective; this inquiry led me to present hospitality as an identity for the Korean-American Christian community. I also included a sermon manuscript written from the postcolonial perspective as one of the practical ways to help Kumran congregation in a

ministerial setting; the sermon served as a practical example of how to move forward from the four negative elements in Korean-American Christians' identity to the four positive ones: hospitality, diversity, independence and activeness.

I hope this new identity based on the postcolonial concept of hospitality may help Korean-American Christians free themselves from the bondage of the "oppression of otherness" and recover their self-esteem and independence, so that they can invite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ethnic and religious backgrounds to the table of renewal.

KEYWORDS: Collective Identity, Oppression of Othering, Post Colonial Hospitality, Community of Hospitality, Post Colonial Bible Interpretation

국문 초록

Korean American Christian 정체성 고양 목회를 위한 탈식민주의적 접근 제시:

시애틀 금란교회를 중심으로

by

Kwang-Kyun Kim

본 연구는 현재 미국에서 한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느끼게 된 Korean American Christian 정체성 혼란과 갈등이 동기가 되었다. 원인을 찾는 것과 함께 혹시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포함한 한인 교회가 이런 혼란을 해결하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질적 연구를 계획하여 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연령, 성별, 미국 거주 기간, 신앙력, 이중언어 구사여부, 미국 문화에 노출이 많은 혹은 적은 직업 등을 고려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Korean American Christian 정체성 혼란이 타자화(othering)의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며,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는 4 가지 부정적 요소의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탈식민주의 관점과 그 관점이 제시하는 긍정적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을 모색하였고, 환대의 공동체성을 제시하였다. 배타성, 열등감, 획일성과 수동성의 4 가지 부정적 정체성의 요소들을 극복하고 환대, 다양성, 주체적 능동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회 실천 방안으로 설교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탈식민주의 신학의 개념인 '환대'를 근간으로 삼은 정체성이 타자화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져서 자존감과 주체성을 회복하게 하고 나아가 타인종들까지 회복의 테이블로

초대할 수 있는 Korean American Christian 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연구이기를 희망한다.

키워드: 집단적 정체성, 타자화의 억압, 탈식민주의적 환대, 환대의 공동체,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SUMMARY

It has been about three years since I started serving a Korean immigrant congregation in Seattle, Washington. I faced many challenges serving a so-called "immigrant ministry," namely: the limited English capability of the first generation, which inhibits the passing down of their faith; confusion surrounding Korean-American Christian identity; and the instability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Since I determined that the identity confusion was the underlying problem among them, I came to ask myself whether Korean immigrant churches have been making a difference in shaping desirable Korean-American Christian identity. My D. Min. project and its qualitative research started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In order to learn the vivid and unique life experiences of Korean-American Christians,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lected church members from diverse backgrounds in terms of age, gender, terms of U.S. stay, terms of church membership, dual-language proficiency, and type of employment in the U.S. I analyzed the interview results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The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nts had either a remarkable absence of awareness or a confusion around Korean-American identity. Participants identified exclusiveness, inferiority and low self-esteem, uniformity, and passiveness as negative components keeping Korean Americans from developing a positive identity.

With the help of postcolonial perspectives and concepts, I proposed "hospitality" as the core of Korean-American Christians. This means that the Korean-American church can be restored, from the negative self-image of its members to a community defined by hospitality. Postcolonial theology of hospitality is often symbolized by the image of a round table that doesn't have a seat of honor. Thus, at this table, people with all their differences are welcomed,

and all of them are joined together to become one community of hospitality. Furthermore, seeing Korean-American Christian identity in this open and inclusive way will help communica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so that they can embrace each other as one community.

Finally, I included my sermon script written from a post colonial perspective as one of the ways church can help Korean-American Christians to move beyond exclusiveness and a sense of inferiority toward hospitality, beyond uniformity toward diversity, and beyond dependent passiveness toward independent activeness.

I hope my project will help Korean-American Christians experience their communal identity of hospitality and ultimately benefit the coming of God's kingdom.

국문요약

미국에 와서 시애틀에 있는 한인 교회 목회를 시작한지 약 3 년이 되었다. 내가 느꼈던 이민 목회의 어려운 점은 대체로 '언어 문제로 인한 다음세대 신앙전수의 어려움,' 'Korean American Christian 정체성 혼란과 갈등,' 이합집산이 쉽게 일어나는 '한인 교회들의 불안정성'의 세가지로 요약되었다. 나는 'Korean American Christian 정체성 혼란과 갈등'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고, 특히 한인 교회가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 형성에 바람직하고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다. 나의 목회학박사 프로젝트와 질적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시작되었고, 나는 이 연구를 위하여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령, 성별, 미국 거주 기간, 신앙력, 이중언어 구사 여부와 다양한 미국 문화에 노출되는 직업 여부 등을 고려해 10 명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Korean American Christian 으로서 살아온 경험들을 들었고, 질적연구방법으로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Korean American 정체성 인식 부재 및 혼란이 발견되고,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소들로 배타성,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획일성, 현상유지의 수동성이 도출되었다.

나는 탈식민주의 관점이 무엇인지 나의 연구 목적에 관련된 어떤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지 조사 고찰하였다.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개념들에 도움을 받아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의 핵심은 ‘환대’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Korean American Christian 은 ‘환대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야 한다. 환대의 신학은 상석과 하석이 없는 둥근 식탁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차이를 부정할 때 환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의 차이는 선물이라는 시각을 갖게 될 때 진정한 환대를 할 수 있고, 환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을 이렇게 열려있고 포용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때, Korean American 1 세대와 1.5 세, 2 세대들도 서로 소통하며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Korean American Christian 들이 환대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정체성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배타성과 심리적 열등감으로부터 환대로 나아가고, 획일성은 다양성으로, 비주체적 수동성은 주체적 능동성으로 나아가야한다. 이를 위한 목회 실천적 방안으로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쓴 나의 설교를 제시하였다. Korean American Christian 이 환대의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나의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문제제기: 왜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정체성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가?

신학대학원 유학생활 시기에 교육전도사로서 이민목회, 이후에 미국인 목회와 본국에 돌아가서 한인목회, 그리고 다시 미국에 와서 한인 이민 교회를 목회하게 된 지 약 3 년이 되어간다. 만약 처음부터 이민목회만을 했다면, 이민사회와 이민목회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잘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여러 곳에서의 목회 경험이 쌓인 상태로 다시 한국인 이민자 교회를 담임하게 되니, 소위 '이민 교회'만의 특성과 이민자들의 세대별 특징과 겪고 있는 어려움, 그에 따른 이민자 목회만의 특징과 어려운 점들이 더 잘 보이게 되었다.

'이민목회'의 어려운 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미국교회나 한국교회 등 교회 일반으로 공통된 목회 어려움과, 한국교회 특성상 어려운 점을 제외하였을 때,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꼽는 어려움들은 나의 견해를 포함하여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언어 문제로 인한 세대간 소통과 신앙전수의 어려움,' 'Korean American Christian 정체성 혼란,' 그리고 앞의 문제들이 복합되어 입지가 좁아진 한인사회 내에서 쉽게 이합집산하는 양상이 교회에도 반영되어 일어나는 '한인 교회들의 불안정성'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들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은 미국 워싱턴주 Federal Way 라는 인구 10 만 도시이며, 이 중에 코리안 어메리칸 인구는 대략 15,000 명(약 15 %)이다. 그런데 이곳의 한인 교회(이민 1 세대가 중심이 되는 교회, 흔히 이민 교회라고 부른다.)는 약 60 여개로 추산되며, 1.5 세대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는 약 30 여개로 추산된다. 2 세들은 미국인 교회를 다니거나 한인 교회의 영어 예배부 예배를 드린다. 혹은 배우자가 1.5 세 중심 교회에 다닐 경우 함께 다닌다. 이렇게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가능하면 다양한 인종 문화를 포함하는 미국인

교회보다는 한인들만 모이는 예배와 교회를 선호하고 있었다.[1] 더욱 특이한 점은 코리안 어메리칸이라 할지라도 1 세대, 1.5 세대, 2 세대가 각각 자신의 세대만의 예배와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존 교회들이 갈라지거나, 세대별로 모여서 새로 개척되는 교회들로 인해 교회 수는 늘어만 가는데, 정작 전체 성도 수는 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잦은 수평이동이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나는 시애틀 금란교회에 부임한 이래로 이러한 문제적 현실에 대하여 다양한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왔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언어 문제로 인한 세대간 소통과 신앙전수의 어려움'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목회자들은 '수평이동이 쉬운 한인 교회의 불안정성'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랐다. 물론 성인이 되어 미국에 이민 온 (따라서 대부분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1 세대 성도들과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2 세대가 함께 예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와 영어가 둘 다 가능한 1.5 세들은 왜 그렇게 그들만 따로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하는걸까? 그들은 영어로 예배드리는 다인종 미국교회도 선택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이 키우는 자녀(2 세대)가 자신들의 교회에서 신앙을 키우고 성인이 된 미래에도 자신들의 뒤를 이어 본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는 듯했다.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에도 이민자들이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민 교회를 개척하고 모이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 1 세대가 지나면 영어를 사용하는 다인종 미국교회를 선택하거나, 1 세대부터 1.5 세대, 2 세대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처럼 세대별로 완전히 분리되고, 다인종 미국교회에 섞이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즉 언어문제 이전에, 수평이동이 용이한 이민 교회의 특성 이전에, 코리안 어메리칸의 정체성 혼란, 그리고 더 나아가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

[1] 앞으로 1 세대, 1.5 세대, 2 세대를 전부 일컫는 용어로 코리안 어메리칸이라고 칭하겠다.

실제로 미국에 온 지 20-30 년 이상되는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개개인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본인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한인 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들어보면, 여기가 한국인가 착각할 만큼 예배와 설교 주제가 한국에서 행해지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나 장로들은 공예배에 대놓고 '우리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살고있는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조금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 교회 시스템과 예배, 설교 내용과 스타일이 결국은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고, 코리안의 뿌리를 가진 미국인으로서 미국 땅에서 자긍심 있게 기여하며 살아가는데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을 고민하던 차에 2017 년부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을 들으면서, 탈식민주의적 관점, 오리엔탈리즘, 타자화 등의 개념들이 이민 교회가 Korean American 성도들의 정체성을 검토, 모색, 확립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 1 세대와 그 자녀 세대의 삶은 '타자화'된 삶이다. '타자화'는 "권력을 가진 무리가 그렇지 못한 무리들을 보는 시선"[2] 이다. 이 때, 권력을 가진 무리들과 다른 점들, 즉 차이점은 열등하게 여겨지고, 특징은 낯선 것들로 여겨지는데, 이는 권력있는 무리들의 시선과 입으로 '타자'들이 묘사되기 때문이다.[3] 이렇게 권력구조가 본질적인 문제이고 언어 등 다른 요인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어가 자유롭거나 또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미국의 주류 인종으로 인정받는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이것이 영어가 자유롭지 못한 1 세대 한인 이민자들 뿐 아니라 영어가 제 1 언어인 2 세대 한국계 미국인들도 예외없이 '타자화'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미국에서 타자화로 인해 겪는 고통과 그것으로 인한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아직도 개인의 영적 구원에 치우친

---

[2] 김혜란,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lectur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June 5, 2018).

[3] 김혜란,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전통적인 한국식 목회 모델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 또 개인이나 공동체가 겪는 갈등의 문제도 개인의 영성에 책임 지우는 목회와 성경 해석에 치우친 감이 있다. 개인의 영적 구원 문제를 소홀히 하는 급진적인 실천신학도 목회 현장에는 맞지 않지만, 모든 갈등과 고통을 새벽기도에 나오고, 철야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해결하라는 한국교회 특유의 개인주의적, 영적 해결방식 위주의 목회도 성도의 건강한 신앙에 결국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목회자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통해 성도들의 시야가 좁아져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보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불균형 상태가 되고, 그것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정체성 형성에 취약하게 됨을 탈식민주의 관점은 나에게 새롭게 조명해 주었다.

사실 정체성 문제 개선은 목회 현장에서 시급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한인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한인교회는 코리안 어메리칸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프로젝트를 통해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이민 교회 중 하나인 내가 섬기는 시애틀 금란교회에서의 나의 목회를 돌아보며, '타자화'의 압력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건강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냄을 통하여, 본 교회와 교민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미국 사회에 존재감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목회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B. 논지에 대한 토론

본 연구를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실천신학에서 바라본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과 성도들이 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실천적 목회의 방향성 점검 및 모색이다.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접할 수 있고, Korean American 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된 연구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의 정체성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집단의 정체성은 주어진 사회의 세력관계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이 소수 인종으로서 미국에서 살면서 늘 타자화의 억압 아래 있는 Korean Amercian 의 정체성 문제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Korean Amercian Christian 의 정체성 역시 개인주의적 측면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적 인식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성서적일 것이다.

탈식민주의 및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식민주의에 의해 타자화된 식민주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왜곡된 자아상, 즉 정체성을 회복하게 돕는다. 식민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득권 무리들이 그렇지 않은 무리들을 타자로 돌리고, 타자화된 무리들과 자신들과의 차이를 구분하여 그 차이에 우월과 열등이라는 가치부여를 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영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것이 제도로 구축된 형태 중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제도가 가부장제도와 식민주의라고한다.[4] 이 관점에서 보면 가부장제는 남성이 타자화한 여성들을 지배 종속하여 온 제도이고, 식민주의는 앞서 발전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후발 국가들을 타자화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억압을 합리화하고 종속을 지속시켜왔던 제도이다.[5]

Korean American 의 정체성 혼란 문제를 고찰하는 가운데 발견한 식민주의 및 미제국주의의 부정적 영향은 정치적, 경제적 억압과 피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오랜 타자화의 억압으로 인한 정신적 피폐이다. 가부장제가 남성 대 여성의 차이를 구분하고, 여성의 특성이 모두 열등하고 남성의 특성이 모두 우월하다고 가치를 부여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여성을 복속시켰던 오랜 세월동안, 여성들은 이런 경험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부당한 패러다임과 제도라는 것으로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가능케 했던 가장 핵심적인 폭력은 여성은 열등하다는 정신적 세뇌로, 이를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이 구축한 가부장제에 아예 도전할 것을 꿈꾸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미국식 정치, 경제, 문화, 전통 등 모든 면이 우월하며, 미국 이외의 나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전통들은 열등하다는 식민주의적 가치가 스며들 때, 그들 나라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장점과 앞으로 나아갈 힘, 즉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잃고, 점점 더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

[4]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페미니즘과 지식생산* (서울: 문학과학사, 2006), 100.

[5] 태혜숙, 99.

어떻게 하면 식민주의의 '타자화'의 억압으로부터 Korean American 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을까? 김혜란은 실천신학의 개념 가운데 '웰빙'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이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같이 잘 사는 것이며, 나의 온전함과 남의 온전함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라고 하였다.[6] 나를 넘어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같이 잘 살기를 바라는 넓은 시야의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기독교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본고장인 미국 땅에서 한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나의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Korean American 의 정체성을 타자화하려는 시선에 압도되지 않고, 본인들이 속한 교회와 교민사회까지 온전함을 이루어야겠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공동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본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러셀(Letty M. Russell)의 '환대'라는 개념이 타자화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개념이라고 믿는다. 러셀은 그녀의 책, *공정한 환대*에서 기독교인이 이웃을 대할 때, 사랑보다 더 심화된 개념, 즉 공유와 평등의 정신이 더 더하여진 개념으로서의 사랑으로 '환대'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그녀의 책은 우리가 낯선 이웃을 대할 때 자선이나 섬김의 대접 같은 형태의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나'를 중심에 놓고 이웃을 주변에 놓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준다. 그에 비하여 '환대'(hospitality)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모든 관계에서 어느 하나의 중심은 없다고 여기는 시각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들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가게 하는 자세이다. '환대'의 개념을 통해 스스로를 얽매고 있는 식민주의적 시각으로부터 Korean American 이 자유로워지고,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인종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환대'의 정신으로 다가간다면, 매우 바람직한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 추구에 있어서 장애가 되었던 또 다른 문제는 이민 교회들이 갖고 있는 한국교회 특유의 권위주의적, 배타주의적 목회 양식으로부터 나온다.

---

[6] 김혜란,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이제껏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양육에 있어서 집단중심적이고 권위적, 관습적인 전통에 의지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 이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이민 교회들에게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인이 어떤 창의적이거나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기보다는 교회 전체 또는 교회 안의 집단에 속하여 그 안에서 인정 받는데에 만족하는 성향을 낳았다. 이는 또한 결국 주체적이지 못하고,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닌 사람들과 문화 등을 수용하거나 공존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배타적인 성향을 초래하였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직위가 있다고,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자라고, 자족하고 자만하여 밖에서는 포용과 관대, 섬김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많이 본다. 또 세상과 구별된 성화의 삶을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삶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인 성도들도 있다. 이러한 왜곡된 크리스천의 정체성의 문제는 성서를 열린 마음으로, 주체적으로 읽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교회의 양적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그에 맞추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의 상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크리스천의 이미지로 제시한 목회자인 나에게 결국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성해본다.

이러한 문제적 현실에서, 이민 교회가 Korean American 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열린 마음으로 주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탈식민주의적 성서해석을 도입,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박흥순은 그의 저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에서 전통적이고 표준적이라고 여겨지는 성서해석이 기득권자, 지배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민주의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쓰여졌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그러므로 새로운 성서해석이 필요한데, 이는 이미 존재하는 전통적 보편적 해석이라고 여겨지는 성서 해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비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후에 부지불식간에 성서 안에서 '타자'로 밀려난, 혹은 '타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성서 안의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노력이 새로운 성서해석이다.

---

[7] 박흥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서울: 예영 B&P, 2006), 136-37.

비슷한 맥락에서 김혜란은 성서 이야기의 힘을 강조하였다. 그녀의 저서 *Story and Song* 에서 "'이야기로서의 성서'는 주류가 아닌 타자 공동체도 성서를 자신들의 상황의 지평에서 재해석할 자유를 갖게 된다"[8]고 하였다. 강단에서의 설교든, 평신도가 함께 나누는 성경공부 시간이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성경이야기 시간(bed time story)이든,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대하는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실천신학의 간학문적 접근으로, 특히 탈식민주의적 관점의 도움으로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을 조명해 볼 때, 어떤 요소들이 Korean American 들의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고 앞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본 연구를 통해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나는 내가 섬기는 이민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정체성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심층면담할 것이다. 그들의 구체적 경험을 면밀히 듣고 분석하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민 교회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은 긍정적인 가능성은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타자화의 억압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 타자화를 내면화함으로써 같은 코리안 어메리칸 사이에서도 어떤 갈등이 작용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탈식민주의가 타자화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하는 환대의 공동체성 추구, 다양성 존중, 주체성과 능동성 같은 특성들을 건강한 정체성 고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이다. 또 기존의 교회의 성경공부나 예배, 설교가 이와 같은 바람직한 정체성 추구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 성경읽기나 이야기로서의 재해석 등 탈식민주의 신학의 제안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모색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체성 고양을 위해 우리교회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

[8] HyeRan Kim-Cragg, *Story and Song: A Postcolonial Interplay Between Christian Education and Worship* (NY: Peter Lang, 2012), 2.

C. 청중

Korean American 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연구의 주 대상이 본 교회의 성도들이 될 것이다. 본 교회는 시애틀 페더럴웨이에 설립된 약 3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교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어른이 되어서 미국에 온 이민 1 세대, 초등-중학교 무렵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5 세대, 미국 땅에서 태어난 2 세, 3 세대 등 다양한 세대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체성에 대한 본 연구는 이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주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인사회와 Korean American Christian 들을 대상으로 한다.

D. 연구의 범위와 제한

본 연구는 연구자가 담임하는 시애틀 금란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성을 가진다. 질적 연구 조사는 성도들 가운데 열 명의 심층면담 자원자들과의 면담을 주로하는 제한성을 가진다. 또한 시애틀 금란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설교, 목회, 프로그램을 관찰의 근거로 하는 제한성을 지닌다.

E. 독창성과 공헌

그동안 정통신학에서부터 탈식민주의 실천신학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어왔다. 또한 코리안 어메리칸의 정체성에 관련하여 탈식민주의적 관점의 연구와 자료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초강대국이자 제국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지목하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Korean American 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식민주의에 의해 타자화된 왜곡된 이미지를 안고 살아간다. 또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 이것은 곧 성도의 자존감 결여로 이어지고,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Korean American 의 상을 심어주지 못하게 되며, 성도간에도 부정적 선입견에 사로잡혀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 사랑의 실천과 결속을 방해한다. 이민 목회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Korean American 의 정체성 추구 및 왜곡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돕고, 더 나아가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돕는다면 교회 안과 밖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자화'된 성도들은 주체적으로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목회자가 제시하는 성서해석에만 의존하여, 아무 생각과 의식 없이 몸만 교회에 왔다갔다하는 성도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줄 알고 가정과 이웃, 교회 밖에서 이웃들을 '타자화'하며 살아간다. 기존의 권위와 관습에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쉬운 길을 택했던 성도들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내 자신을 '타자화'하지 않고, 스스로 나를 구원하신 모습, 정체성을 찾아 가까워 지도록 주체적으로 노력하도록 이끌 것이다.

Chapter II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

이제껏 교회는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야한다,' '이렇게 살아야한다'는 연역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쳤지, 정작 Korean American 성도들이 일상생활과 현실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어떤 체험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Korean American Christian 개개인의 정체성 인식은 각 개인이 살아온 특수한 환경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며, 이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연역적인 가정하에, 피상적인 질문에 그치기 쉬운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시애틀 금란교회의 성도들이 Korean American Christian 으로서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의 본질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과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A. 연구 참여자

이 연구를 위하여 나는 현재 시무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주 페더럴웨이에 소재하고 있는 이민 교회인 시애틀 금란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동의하는 열 명의 성도들을 선정하였다. 열 명의 성도는 연령, 성별, 미국 거주 기간, 신앙력과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는 직업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참여를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자발적으로 응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나이	성별	미국거주기간	신앙력	직업
참여자 A	70 대	남	40 년	40 년	은퇴(전 음대교수)
참여자 B	60 대	남	30 년	30 년	전 사업가, 현 care giver
참여자 C	60 대	여	20 년	20 년	미용사
참여자 D	50 대	남	30 년	모태신앙	한의사

참여자 E	50 대	여	15 년	30 년	식당경영
참여자 F	40 대	여	25 년	모태신앙	약사
참여자 G	30 대	여	3 년	모태신앙	주부
참여자 H	20 대	남	3 년	모태신앙	대학생
참여자 I	20 대	여	22 년	모태신앙	회사원
참여자 J	10 대	남	10 년	5 년	학생

위의 표에서 보듯이, 연령은 10 대부터 70 대까지 전 연령대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도록 하여 모든 연령대의 정체성 인식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별 역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슷한 비율이 되도록 안배하였는데, 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성별에 따라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을 말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한 다양한 남, 여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다. 미국 이주 후 거주 기간은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분류기준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따라 자신의 Korean American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나이 대에 미국에 왔는지도 잘 살펴야 할 정보인데, 어린 나이에 왔을수록 언어나 문화면에서 미국 적응이 빠르기에 이 또한 자신의 Korean American 정체성 인식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참여자의 직업도 다양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직업에 따라 미국 문화에 노출 정도가 달라지고, 늘 접하는 주변 사람들의 인종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 또한 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신앙의 성숙도와 신앙연수는 비례하지 않지만, 대부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꾸준히 교회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신앙력을 참고하여 다양하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에 대하여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본 교회에 오랜 기간 소속되어 있느냐는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한인 이민자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한 교회에서 오래 정착하지 않고 사업, 이사, 자녀교육, 기존 교회나 교인들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옮겨 다니기에, 이들 스스로도 본인이 한 교회나 한 교단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본

교회를 시무한 것도 2 년 반 밖에 되지 않았고 이 교회가 연구자의 첫 이민 목회이기에 연구자가 목회한 시점부터 본 교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로 연구를 한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여러 교회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성도들로 구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인 특정 교회와 교단을 넘어선 전체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 연구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참여자들이 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윤리서약서에는 면담할 때 내용들이 녹음된다는 것을 사전에 밝히고, 연구 결과가 출판되거나 학술대회의 토론자료로 이용될 경우 참여자 개인의 이름이나 신상이 노출되거나 유추될 만한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면담 중 나오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면담장소나 시간 선정에 있어서 교회 공간보다는, 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외부 장소에서 만났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검토와 승인을 얻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B. 연구 방법

나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 이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도 부합하며, 이 연구를 통하여 무엇보다 목회자인 나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려는 목적에도 부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의 선입견과 기존 경험 등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9] 이는 철학 사조로서의 현상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현상학에서는 대상이 인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대상을 지각할 때,

---

[9] 유기웅 et al.,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143.

인간의 주관에 의해 해석되고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10]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에서 대상은 연구참여자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대상(의미체)이며, 이는 곧 연구참여자의 의식에 드러나는 체험이다.[11]

이 때문에 다른 질적연구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커지는데, 연구자가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가운데 연구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 나는 나 자신의 전이해에 근거한 가치 판단을 중지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의식적으로 노력하였고 이는 연구자이자 목회자로서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질적연구의 한 분야로서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활동을 통한 귀납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이제껏 교회는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야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연역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쳤지, 정작 Korean American 성도들이 일상생활과 현실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어떤 체험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는 현재 시애틀 금란교회의 성도들이 Korean American Christian 으로서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의 본질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 아는데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고,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연구 방법의 전통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뷰, 그 중에서도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와 관련한 지식의 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의도적인 대화이다.[12] 즉 연구자와 참여자의 공동의 경험구성 과정으로서 인터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인터뷰란 연구의 참여자가 제보하는 내용을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청취, 수용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해석,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경험구성에 개입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10] 유기웅 et al.,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142.
[11]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91.
[12] 유기웅 et al., 258.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13]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Korean American Christian 의 정체성 인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회가 더 나아가 한인교회가 이들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 및 고양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연구자로서의 나 자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심층면담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면담기법으로는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이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면담기법인 '반구조화된 면담'기법을 사용할 것이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14]

① 우리 자녀에게 "너는 미국 땅에 살아도 한국인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③ 본 교회의 예배, 프로그램, 특별활동 중에 영어를 사용하거나 통역을 통한 이중언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④ 미국에서 살면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차별들이 있나요?

⑤ 다른 인종의 미국인들과 어울렸던(접촉했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그들이 가진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⑥ 시애틀 페더럴웨이는 타지에 비해 한인사회가 큰 편인데, 한인사회에 대해 어떤 면이 개선되기를 바라십니까?

⑦ (많은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의 프로그램이 (자녀, 손녀 혹은 본인에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⑧ (1.5세, 2세와 배우자가 타인종 미국인인 성도들에게 한정) 영어가 더 유창하다는 것 때문에 교회나 한인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⑨ (1.5세, 2세와 배우자가 타인종 미국인인 성도들에게 한정)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인 커뮤니티가 당신의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⑩ 타인종 미국인 이웃들을 대할 때 적용, 실천할 만한 말씀을 설교나 개인적인 성경읽기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⑪ 성경에 나오는 주류가 아닌 사람들(marginalized people) – 여자, 어린이, 나그네, 포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 의 이야기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⑫ 인종과 언어가 다른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 드려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타인종 미국인들과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경험일 것 같나요?)

⑬ 우리교회를 포함하여 한인교회가 이웃의 타인종 비크리스천 미국인이나 난민들과 함께 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3 유기웅 et al.,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259.

14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326.

⑭ 우리교회가 1.5세, 2세, 유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어떤 면에 더 힘쓰기를 바라십니까?
⑮ 크리스천으로서 미국 땅에 사는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 연구 절차

나는 심층면접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분석할 때, 콜라이지(Paul F.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절차에 따르면, 먼저 기술들을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내고,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무리들로 묶기를 시도하고, 조사된 현상을 철저하게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응답자가 제시한 철저한 기술의 유효성을 확인한다.[15] 이 분석 절차를 통하여 시애틀 금란교회 성도 개개인들의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정체성에 관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체험들 속에서,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내가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수행한 콜라이지(Paul F.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녹음한 면담 자료들을 문서로 기록한다.
> 둘째,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가운데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낸다.
> 셋째,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묶는다.
> 넷째, 조사된 현상을 철저하게 기술한다.
> 다섯째, 각각의 응답자가 제시한 철저한 기술의 유효성을 확인함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16]

면담을 시행하기 이전에 면담질문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일종의 선입견과 의구심이 있었다. 그것은 참여자들이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것과 그들이 과연 얼마나 솔직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소 우회적인 질문으로 만들었다.

1) 우리 자녀에게 "너는 미국 땅에 살아도 한국인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

15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107.

16 김영천, 107 and 109.

그 밖에 내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면담 참여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에포케(epoche)'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가정으로부터의 해방, 판단중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그리스어로, 멀리 떨어뜨려 놓음 혹은 억누름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우리말로 흔히 판단 중지라고 일컬어지는데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것에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참여자는 긍정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② 참여자는 자신의 정체성 인식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③ 참여자는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④ 참여자는 우리 교회가 타인종 미국인들에게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⑤ 나이가 든 참여자는 본인의 경험만이 전부인 양 고수하며 균형잡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다.

⑥ 영어가 더 자유로운 젊은 세대들은 부모세대들이 미국에서 겪은 경험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참여자는 본인의 경험에만 사로잡혀 균형잡힌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나의 예상(에포케 5 번)과는 달리 대부분은 자녀세대나 손자세대에 관하여 편견을 앞세우기 보다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자녀세대에 맡기고 있었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정체성 혼란 문제와 건강한 정체성 회복과 고양이라고 명시하고 설명했지만, 아무래도 본 교회의 성도들이다 보니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가 우려하여 그런 부분에 방어적이고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답을 하였다. 따라서 그런 질문에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연구 목적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반 이후에는 질문지에서 삭제하였다. 삭제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3) 우리교회를 포함하여 한인교회가 이웃의 타인종 비크리스천 미국인이나 난민들과 함께 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4) 우리교회가 1.5세, 2세, 유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어떤 면에 더 힘쓰기를 바라십니까?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응 자체가 이민 교회가 코리안 어메리칸 1.5 세대와 2 세대와의 소통과 신앙전수에 대하여 패배감과 배타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된다.

D. 연구 결과 및 해석

나는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대상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이들과의 심층면담을 2019 년 10 월 20 일부터 11 월 20 일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한 사람당 평균 1 시간 30 분 정도였는데, 대상자에 따라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리기도 하였고, 어떤 대상자는 몇몇 질문 외에 단답에 끝난 경우도 있었다. 영어 가능자들이 긴 시간 면담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그 만큼 미국 문화와 다양한 인종에 노출되고, 직업이나 생활에서 관련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어 소통이 매우 제한된 경우, 미국 문화나 타인종간 경험에 대하여 이렇다할 경험이 쌓여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콜라이지(Colaizzi)의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면담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12 개의 주제와 8 개의 주제군, 4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세부내용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2〉 자료 분석 결과: 범주, 주제군 및 주제

범주	주제군	주제
배타성	언어와 경험의 한계로 인한 배타성	• 한인사회가 선거나 시 주최 행사에 소극적인 것 좋지 않다. • 자녀가 한국의 뿌리를 잊지 않기 바라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키운 것 같다. • 한인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혜택만 받아 누리면서 정작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상처받은 경험으로 인한 배타성	• 다인종 교회나 커뮤니티에 소속되어도 결국 같은 동족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 (다인종) 회사 직장 사람들 중 몇몇이 영어를 완벽하게 못하는 것을 가지고 흠을 잡아 괴로워요. • 흑인이나 히스패닉 점원들도 인종차별적 대우를 해서 그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어요.

차별적 억압으로 인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타인종으로부터 받은 차별적 억압	• (다인종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매일 매순간 차별을 느낀다. • 학교, 직장, 쇼핑몰, 마트 등 일상의 모든 환경에 여러가지 차별이 존재한다. • 자격지심에 차별 받는다고 더 심하게 느끼는 건지도 모른다. • 잘하면 잘해서 견제 들어오고, 못하면 못한다고 문제 삼아요. • 백인들은 못할 때는 친절히 도와주다가도 자기들보다 잘하거나 윗직급이 되면 그렇게 차갑고 불편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해서도 안돼요. • 친척 중에 학교에서 1 등하는 아이(코리안 아메리칸)를 담임교사가 기를 죽여서 정신과 치료받고 아주 소심한 아이가 된 경우가 있어요.
	한인들 사이 소외적 차별	• 한인사회가 전체로 잘 뭉치지 않고 각자 지인들끼리만 따로따로 모이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 한국인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너는 한국인이라고 주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도와주면 고마워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끼리만 어울린다. • 미국에서 오래산 한인 이민자들의 텃세가 있다. • (영어 잘하는) 전문직 한국인들이 (영어 못하는) 한인 사회 동포들을 너무 이용하기만 한다.
획일성	한국적인 것에 대한 향수 때문에	•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도 한국식으로 드리는 게 좋아요. • 다른 인종 성도들과 가끔이면 괜찮지만 항상 예배를 드리면 좀 불편해서, 은혜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외국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순간순간 영어나 문화면에서 맞춰야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종적, 문화적, 세대적 순수성이 주는 안정감을 바라서	• 미국 자체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데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느껴요. • 영어가 더 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미국교회에 정착하기는 힘들고, 한국교회에 오면 잠시 좋기는 한데 잠시에요.

현상유지의 수동적 경향성	타인종과의 교류 면에서	• 한인사회가 영어권 다른 인종 민족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공유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 한인들이 좀 더 Volunteer service(자원 봉사)나 Community service(지역 봉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영어 사용 교인이 오면 그때 필요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죠.
	세대간 소통 면에서	• 우리교회는 이민 교회이므로 1 세대 이민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민자들의 믿음생활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 2 세대들은 그들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2 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생활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심층면담을 통하여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관련하여 정체성에 혼란 내지 갈등이 있음을 의미하는 부정적 요소로 배타성, 차별적 억압으로 인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획일성, 수동성의 4 가지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이는 모두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지적하는 '타자화'의 억압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로 연관지을 수 있다. 본 심층면담의 결과를 해석하면서 처음 발견한 것이 바로 이런 타자화의 압력으로 인해 코리안 어메리칸이라는 집단 정체성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참여자들 누구도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여기거나 미국인이라고 여겼지 Korean American 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Korean American 이라는 자신들을 묶을 수 있는 공동체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듯 여기고 있었다. 그 만큼 Korean American 이라는 집단 정체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스스로 열등하다고 여긴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나는 아래의 글에서 먼저 심층면담 결과를 해석하면서 발견한 코리안 어메리칸 정체성의 부재 및 혼란에 관해서 다루고, 그 이후에 정체성 인식에 문제적 징후로 도출된 네 가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1. 정체성 부재 및 혼란에 관해서

대부분의 면담 참여자들은 미국을 낯선 곳, 타향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자신은 미국인이 되기에는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수십 년 이상 미국 땅에 살아온 참여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참여자 가운데 미국에 갓 이주하여 영주권 신청 과정 중인 젊은 부부나 유학생의 경우 코리안으로서 미국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교류할 희망적인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과 대조를 이루었다. 미국에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참여자들이 미국 주류인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 사이에 이질성과 괴리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 (연구참여자 B)
> *우리 모두는 가족과 가문의 성(last name)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비록 객지에 와서도 출신과 고향을, 해외에 와서 살고 있지만 … 각자의 조국을 소개하려는 마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켜 내려오려는 …*
>
> (연구참여자 G)
> *아직은 영어도 익숙치 않아서 많이 더 배워야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든 외국인에 대해서 친절하고 잘 도와주려는 모습이 감명 깊었어요. 한국에서는 타지인들에게 이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더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낳아 기른 자녀세대에 대해서도, 그들이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과 자녀들에게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참여자들의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자녀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선조들이 세운 나라를 우리 조국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한 자녀들이 자라면서 한국어를 잊고, 미국 언어와 문화에 더 익숙하게 되다보면 부모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미국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녀들을 미국사회에 뿌리를 잘 내리는 미국인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영어 소통능력이 있고, 전문직으로 주류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 (연구참여자 B)
> *자녀들에게 "너는 미국 땅에 살아도 한국인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은 각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 개인적인 이유는 자녀들이 현지 문화에 젖어 부모와의 생각과 의견을 달리 하게 되어 점점 부모 자식간에 있어서는 안될 이질감을 형성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그런 일들로 가족이면서 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연구참여자 D)
한국인으로 살아가라고 하기 이전에 성실하게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먼저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미국의 혜택만 수혜한다는 후진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 납세의 의무 같은…

한편 자녀세대의 경우 1.5 세대와 2 세대 모두 본인들을 완전한 미국인도 완전한 한국인도 아니며, 그렇다고 한국계 미국인도 아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는 자녀세대들이 그들의 부모세대들이 바라고 가르쳤던 대로 한국인으로 성장하지 않았고, 주류 미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과 다름없는 미국인이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F)
한국인으로서의 고유한 문화나 정서를 유지하고 좋은 가치를 지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는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주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C)
아무리 미국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동양 사람 또는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미국 자체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에 한국인이니까 꼭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에 관한 질문도 참여자들의 대답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질문 중의 하나였다. '차별' 또는 '억압적 차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별이란 인종적 계층화를 강화하는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요소다. 반면에 편견은 태도에 관련된 것이다. 차별은 특정 인종 집단의 일원이 사회적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행동들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특정 집단의 일원을 단순히 호의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17]

그러나 심층면담에서 질문할 때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차별의 학술적 정의를 굳이 알려주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차별이라고 여기고, 차별이라 일컫는지 이해하려는 의도였고, 또한 억압적 차별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만약 억압적 차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면 거꾸로 생각할 때, Korean American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17] Martin N. Marger, *Race and Ethnic Relations: American and Global Perspectives*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A Division of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Inc., 2014), 81.

참여자들은 이 질문에 감정적이고 즉각적으로 답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답을 하려고 애썼다.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중립적으로 답한다는 인상을 주려했다. 영어로 소통이 안되는 참여자들의 경우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한인사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 연구 참여자들이 있는 반면, 마트, 쇼핑몰, 길거리 어디에서나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다.

> (연구참여자 B)
> *미국에 오래 살아왔지만 소위 주류에 포함되어 보지 못하고 늘 가족이나 한인사회에서만 살아와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보지도, 그렇다고 차별을 받아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잠시나마 스쳐가면서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
> (연구참여자 C) *느끼지 못하지만 영어가 필요할 때만 느낍니다.*
>
> (연구참여자 J)
> *학교, 직장, 쇼핑몰, 마트 등 일상의 모든 환경에 여러가지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되고, 미국인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참여자들의 답변도 극과 극으로 달랐다. 특이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상반된 답변을 한 두 참여자는 각각 미국에서도 존중받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 (연구참여자 D)
> *일주일에 7 일, 하루에 24 시간, 항상 (차별을 느낀다). 피부색의 구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도 타인종에 관해 선입견과 구분이 있음에 놀랍니다.*
>
> (연구참여자 F)
> *미국에서 살면서 일상 속에 느끼는 차별은 없습니다. 사람의 특성상 나와 다르게 생기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차별도 존재 하지만, 차별에 중점을 두고 생활을 하라면 자격지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루 24 시간 차별을 느낀다'고 말한 참여자나 '차별은 없다'고 말한 참여자나 말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결국 같은 진실을 다르게 말한 것으로 느껴졌다. 참여자 D 는 차별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작업 환경 안에서 타인종과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종차이로 인한 거리감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 참여자 F 는 인종으로 인한 거리감과 다소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런 것을 차별이라고 일일이 생각하면 내 마음만 상한다는 뜻으로 '차별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사용하며 주류사회에서 직업적으로 안정된 코리안 어메리칸들 일수록 자신들이 당하는 억압적 차별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으나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차별이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은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뜻이며,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어졌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편 영어로 소통이 되지 않고, 주로 한인사회 안에서만 살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이들은 언어의 제약으로 미국 사회 참여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억압적 차별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언론이나 TV 매체 등을 통한 간접경험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기에 많은 1 세대 Korean American 들이 코리안 어메리칸들 전반에게 가해지는 억압적 차별과 타자화의 압력에 대해 민감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어의 제약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타인종에 대해 조심스럽고 배려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답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크리스천이기에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면담하는 상대가 그들의 목회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쩌면 참여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대로 미국인들의 장점이 친절, 배려, 존중이라고 느끼면서, 그런 문화적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스쳐지나가는 만남에서 느끼는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좋은 경험들이 이 범주의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 문화 전반에 존재하는 억압적 차별과 타자화의 억압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신 이 범주의 연구 참여자들은 차별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채, 지엽적인 마찰에 예민했다. 이는 위의 표에 언급한 것처럼 '뭔지 모르겠지만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답변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참여자들이 언급한 마트, 쇼핑몰, 상점 같은 곳은 그들이 고객으로서 타인종 점원과 잠깐의 대화와 계산을 하고 나오는 곳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물건을 사러 들어가도, 불친절한 점원은 흔히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아시안으로 상점에서 타인종 직원의 불친절을 대했을 때, 참여자들은 그것이 차별인지 불친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사실 이런 타인종 직원들 중에 대부분이 그들도

영어가 서투른 흑인, 히스패닉 이민자들이며 차별을 할 수 있는 기득권층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쌓였을 때, 참여자들은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받는다'고 지레 짐작으로 생각하며 마음 상해하는데, 그런 식으로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더욱 쌓여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별을 이런 식으로 다수(the majority) 인종들이 갖는 편견이나 텃세 같은 태도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영어 능력을 갖춰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1 세대나, 어려서부터 미국 사회에서 생활한 1.5 세, 2 세대 Korean American 들이 차별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해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결국 구조적이고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할 억압적 차별의 문제를, Korean American 들은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귀결시킨다. 예컨대, 자녀세대 참여자들은 부모와 차별에 관한 대화를 할 때면 '네가 능력을 더 쌓아 백인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거다' 라든가 '너는 크리스천이니까 네가 더 양보하고, 용서해라' 같은 말을 들어왔다고 했다.

아프리칸 어메리칸들이나 멕시칸계 어메리칸들의 경우, 억압적 차별에 대해서 민감하며 이는 곧 그들을 민족적 집단 정체성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코리안 어메리칸의 경우, 위의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억압적 차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코리안 어메리칸의 개인화를 강화시켰고, 이는 결국 코리안 어메리칸 정체성 부재 또는 혼란의 경향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즉 분석에서 보았듯이,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을 미국인 아니면 한국인으로 양자택일 식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차별 등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세대간 소통이나 연대 면에서 단절을 보이는 등, 집단 정체성의 부재와 혼란상을 보였다.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정체성 부재 혹은 혼란은 낮은 자존감, 자신감 결여로 이어져 타인종들을 대할 때 포용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든다. 모든 참여자들은 타인종과 함께 예배드리는 상황에 관한 질문에 불편함과 이질감을 감추지 않았다. 타인종이 주류인 교회에서 예배드린 경험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면서도 진지한 예배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연구참여자 D)
타인종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배에 임하는 성실함에 놀랐어요. 매 순서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소속 지역의 어려운 일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돕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구참여자 F)
2 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문화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느낄 수 있었지만 형식에 많이 구애 받지 않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금란교회에서 타인종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서로 불편할 것 같다'거나 '은혜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나아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예배와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을까?"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게 되면 그 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수동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참여자 I)
타인종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언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족끼리 모여 짝을 지을거라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D)
흑인교회와 백인교회에서의 느낌이 아주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참석이 몇 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타인종과의 연합 예배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나쁘지는 않겠지만 별로 큰 유익은 얻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타인종에게 교회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배나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먼저 교회문을 두드릴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무척이나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국제 결혼을 한 성도나 자녀들의 경우 다인종 미국교회에 갔을 때 한 두번은 환영받지만, 여러가지 다름을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결심할 만큼 적극적인 환대를 받지 못하여 정착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차별'의 한 양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참여자들 대다수의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볼 때, 금란교회가 타인종 크리스천이나 타문화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얼굴도 결국 똑같은 '차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거기까지 인지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억압적 차별과 타자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어떤 코리안 어메리칸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도출한 4 가지 측면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소들

A) 배타성

본 연구 결과로 드러난 첫 번째 범주는 배타성이다. 배타성은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과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성향이다. 주로 세력이 있는 쪽에서 그렇지 않은 쪽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려할 때 보이기도 하지만 소수나 열세 집단이 자신들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보이는 성향이기도 하다. 면담 참여자들이 대표하는 코리안 어메리칸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적극적으로 미국 내의 다인종 집단이나 커뮤니티 등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주로 같은 코리안 어메리칸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물론 다른 인종들이 본인들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는 것도 반기지 않는다. 이민 1 세대의 경우에는 언어 장벽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자녀세대인 1.5 세나 2 세들까지도 이러한 배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심지어 각 자녀세대들은 부모세대인 1 세대와도 배타적이고, 1.5 세대와 2 세대 사이에도 배타성이 존재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이 모이는 교회도 이러한 배타성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그들이 같은 세대와만 어울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동질성 추구라고 분석되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다음과 같은 답변을 통해 들을 수 있다.

> (연구참여자 A)
> *우리교회는 교회 성격상 1 세 교회 또는 이민 교회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주력하고 그들의 믿음생활에 주력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 (연구참여자 H)
> *2 세들은 그들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2 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생활에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위의 연구 참여자들은 동질 집단일수록 더 이해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질 집단으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미국 다인종 사회에서 이해나 인정을 받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면담 내용 가운데 여러 참여자들이 직장이나 학교, 학부모회 등 여러 곳에서 차별로 인한 상처가 있음을 나누었다. 영어가 1 차 장벽이긴 하지만 영어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1.5 세나 2 세들의 경우 외모로 인한 이방인 취급이 더 큰 상처가 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런 고민을 부모세대인 1 세대와도 나누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했다. 부모세대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녀오면 한국인이 되길 강요하고 (한국식 인사, 존댓말, 예의범절 등), 학교에서는 미국의 언어와 문화 속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하여

뛰어난 성적으로 인정을 받기를 바랐다. 부모세대는 자녀세대가 전혀 다른 두 사회를 오가며 각각의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만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미국인들과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까지 당연한 것처럼 바란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코리안 어메리칸 자녀세대들이 1 세대와 소통하려는 마음을 닫게 하고 부모세대와 자신들을 코리안 어메리칸의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것을 기피하게 된 것이다.

> (연구참여자 H)
> *부모님은 어릴 적 우리에게 너희는 한국인이니 한국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한국말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나 집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미국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솔직히 이해도 안가고. 억지를 부리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미국 친구들을 만나도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너는 한국인이야. 걔들이 너를 다르게 볼거야.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그래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자연스럽지 못하고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정체성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1.5 세들은 부모가 되어서 자신들의 자녀들(2 세)과 자신들을 하나로 묶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2 세들을 미국인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나 문화가 미국의 타인종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2 세들의 경우도, 보다 뿌리 깊은 차별인 외모로 인한 차별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렇기에 2 세들만이 공유하는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들 역시 2 세들만의 예배와 모임을 선호하는 방어적 배타성을 보이게 된 것이다.

B) 억압으로 인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본 연구 결과로 드러난 두 번째 범주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차별의 경험을 말했는데, 크게 타인종으로부터 받은 차별적 억압과 한인들 사이에서 받는 소외적 차별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을 구별할 수 있었다. 타인종들로부터 받는 차별은 미국인들의 언어, 문화, 인종이 아시아인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전제를 깔고 그와 다른 아시안의 모든 특성을 열등하게 보는 시선을 담은 차별이다. 억압적 차별에 관해서는 3 장에서 타자화의 억압과 오리엔탈리즘 등의 용어 설명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1 세대의 경우는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열등감 내지 자신감 결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1.5 세나 2 세의 경우는 학업 능력이나 업무 수행능력이 백인으로 대표되는 타인종들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오히려 미국인들의 차별적인 타자화의 시선을 오랜 세월 받아오면서 생긴 작아진 존재감에 가깝다. 즉 소수이자 이방인인 아시아인은 다수 백인이나 기존 인종들 사이에서 튀어 보여서는 안되고, 앞에 나서서도 안된다는 주눅이 든 무기력감 같은 것이다.

> (연구참여자 J)
>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 솔직히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은 아시아인들이에요. 수학도 과학도 월등히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니 전체적인 학업 성적도 더 잘하는 아시아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백인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은근히 더 왕따시키고, 그럴때 자신들이 나서기 보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이들을 부추켜서 그 아이들이 앞장서게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백인들의 인종차별처럼 안보이고, 문제아나 성질이 난폭한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죠. 짜증났죠.*

> (연구참여자 I)
> *직장에서 십수 년 열심히 일해서 관리자 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요. 아시아 다른 나라 출신들인데, 그들이 저를 업무적으로는 뭐라 할게 없어요. 저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고 영어가 유창하지 못해도 제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영어가 자기들처럼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것으로 그렇게 흠을 잡아요. 작은 실수에도 꼬투리 잡고. 저는 매일 전쟁터에 나가듯이 마음을 준비하고, 직장에서도 수시로 기도하며 버티죠.*

이렇게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타인종, 특히 백인들로부터 받은 타자화의 억압은 타자화의 내면화로 이어지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유발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자화의 억압을 통해 갖게 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좋지 않은 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위에 직장에서 영어 문제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참여자 같은 경우 자신도 모르게 영어 소통이 부족한 코리안 어메리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듯했다.

> (연구참여자 H)
> *저는 직장에서 자리를 잘 잡았지만, 영어를 더 잘하려고 늘 공부해요. 매일 영어로 뉴스 듣고, 단어 외우고…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잘 하려는 노력을 너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위 연구참여자가 우월감을 느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문제는 영어 능력 문제로 주눅들어 있고, 미국인들에게 차별을 당한다고 여기는 다른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그렇게 느끼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주류사회와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영어 소통이 가능한 코리안 어메리칸들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주로 이민 1 세대로 구성된 한인 사회가 이러한 이들에게 리더쉽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반대로, 영어가 가능하여 주류사회에 진출한 코리안 어메리칸

가운데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성공했음에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코리안 어메리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다. 즉, 두 부류 사이에 상당한 불신과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 (연구참여자 E)
> *솔직히 그 정도 학벌에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살지, 왜 한인사회에서 영어 못하는 한인들 돕는다며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러면서 잘난척하고 자랑하고, 등쳐먹고… 그런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경계하죠.*

위와 같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학벌과 실력으로 주류 사회에 자리잡은 코리안 어메리칸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그것은 직장에서는 백인들의 타자화의 억압을 견뎌야 하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인정과 격려 대신 질시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생겨난 듯 했다.

C) 획일성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세 번째 범주는 획일성이다. 사실 코리안 어메리칸은 각 세대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크리스천 비중이 매우 높은 민족으로서 크리스천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코리안 어메리칸 교회가 지역사회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면담을 분석해 보면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모였을 때 변화, 포용, 나눔보다는 한국적인 것만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 내에서도 더 동질적인 것을 찾아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획일성의 범주는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첫째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인종적, 문화적, 세대적 순수성이 주는 안정감을 바라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민 1 세대 연구 참여자들의 바람으로 정도와 표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외가 없었다. 두 번째 주제는 1.5 세와 2 세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과 이야기에서 공통된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교회와 예배를 다인종 성도들에게 오픈하는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답할 때 많이 도출되었다. 즉 1 세대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그들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과거 고국에서 신앙생활하던 것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한국식 예배와 절기행사들에 매우 만족해하며 구정, 대보름, 추석, 동지 등 교회 절기가 아닌 것도 교회에서 모였을 때 성도들과

절기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큰 낙으로 여겼다. 연구 참여자들은 만약 한인교회가 다인종 성도들과 함께 하는 예배를 시행할 경우, 이런 한국적인 절기, 음식, 프로그램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완곡하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은혜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반대입장을 표현하였다.

> (연구참여자 C)
> *외국인들이 한국식 예배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전에도 어느 성도 남편이 미국사람이어서 가끔 영어 예배에 오고 식사도 같이 했었는데 하루는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다른 인종 성도 몇 명이 자기들 나라 말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OO 씨가 기분이 나빠서 집에 갔고, 잘 안오려 한대요. 부인말로는 자기를 바보 취급했다고…*

> (연구참여자 E)
> *저도 미국교회에 가서 한동안 예배드린 적 있어요.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우리보다 더 오픈되어 있고 프라이버시도 잘 유지하고 좋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 목사님의 미국식 설교가 그다지 와닿지 않아서… 한국교회로 돌아오게 되더라구요.*

한편, 1.5 세와 2 세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은 교회와 예배에서 균질성을 추구했다. 이러한 성향은 1.5 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느껴졌는데, 2 세들의 경우 영어와 미국문화에 완전히 젖어있는 이들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주로 타인종 배우자들과 함께 다인종 미국교회에 출석한다고 들었다.

> (연구참여자 J)
> *저와 같은 (1.5 세) 친구들 중에서, 한국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 온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이민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꽤 있고, 그보다 영어가 더 편하고 미국문화에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와서 익숙한 친구들은 한국식 예배보다는 우리 (1.5 세 주축의)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모두 그런 이유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회를 안다니는 친구도 많죠.*

> (연구참여자 H)
> *(1.5 세들이 주축이 된 교회 또는 예배모임) 굉장히 소규모가 많죠. 아무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임에서 계속 신앙생활 안해도 되요. 본인들 맞는 교회를 찾아 나가면 되니까. (1.5 세로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자랐고, 지금도 미국사회에서 부딪히는 경험들이 비슷하니까 목사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서로 통하는게 많아요…*

이렇게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본인 세대끼리의 동질성을 추구하려는 마음의 기저에는 배타성이 깔려 있으며, 이는 결국 더 이상의 변화나 변형을 거부하는 획일적 신앙생활, 예배형태, 프로그램 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배타성과 획일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미국의 다인종 교회가 코리안 어메리칸을 포함해 아시안 어메리칸들이 정착이 쉽지 않으며 이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했지만, 다음 순간 금란교회가 다른 인종 성도들에게 열린 예배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배타성과 획일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도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D) 현상유지의 수동적 경향성

연구 참여자의 응답들 가운데 도출된 '수동적 경향성'의 범주는 타인종과의 교류 면에서 보이는 수동적 경향성과 세대간 소통 면에서 보이는 수동적 경향성의 두 주제로 구별되었다. 이 부분은 주로 연구 참여자가 코리안 어메리칸 커뮤니티(한인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는지, 어떤 점이 개선되길 바라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도출되었다. 또한 금란교회가 코리안 어메리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는지에 관련된 질문에 답할 때 도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한인 사회가 보다 미국사회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도, 금란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수동적 경향성을 강하게 보였다는 점이다.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의 어메리칸들과 소통과 교류, 기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야 미국사회 내에서 코리안 어메리칸의 입지가 견고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자신이 속한 교회가 그것을 위해 어떤 몫을 감당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물러서는 모습에서 이기적인 느낌보다는 자신감이 결여된 느낌을 받았다.

> (연구참여자 F)
> *지역사회 봉사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이들이 어릴 적에 기존 (지역 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다른 인종) 사람들하고 친해지기도 어렵고 잘 안되더라구요. 백인들이 아니더라도 흑인, 히스패닉들은 우리보다는 문화가 가까워서 그런지 잘 어울리던데….*

다른 인종, 문화권 미국인들과의 교류 면에서도 이미 '해 봤는데 잘 안돼' 하는 태도가 느껴졌다면, 같은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 안에서도 세대 간의 소통 면에서 기존의 수준 이상의 소통이나 교류를 기대하지 않는 수동성 내지 체념의 태도가 느껴졌다.

(연구참여자 A)
어차피 우리(교회)가 2 세대 아이들의 삶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냥 걔들 문화를 잘 이해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2 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생활에 더 도움이 될거에요.

여기서 2 세대를 품기 위해 1 세대 교회가 어느 정도 바뀌겠다는 의지도 읽어지지 않고, 2 세대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부모세대와 신앙적 교류를 원할만큼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신앙을 소통할 젊은 리더쉽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점이다. 둘 다 현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고 세대 간의 소통을 하여 함께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겠다는 진취적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Chapter III
탈식민주의와 Korean American Christian 정체성 회복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코리안 어메리칸들의 정체성 인식에 혼란과 갈등이 있고 교회가 이 부분을 선도하는데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탈식민주의 관점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가 기득권을 가진 주류 미국인들이 타자화를 통하여 비주류 타인종 미국인들을 억압하여 유리하게 권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탈식민주의 신학의 주장과 신학적 방향 제시를, 용어 정의를 포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 세대 이민 교회와 1.5 세와 2 세들로 이루어진 코리안 어메리칸 교회들이 이러한 탈식민주의 신학적 방향을 실질적으로 접목하여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 식민지적 상황과 타자화의 억압

식민주의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지배하는 정책이나 방식을 뜻한다. 특히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19 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세계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여 식민지가 된 나라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여졌다. 그러나 오늘날 식민주의의 의미는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독립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전 식민 통치 국가들로부터 예속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에도 쓰인다. 그런 점에서 탈식민주의라는 개념이 도용되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속 관계가 자신들에게 권력과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속시키려 하며, 이러한 노력은 정치적 간섭이나 후원, 경제적 원조나 자본 투자, 기술 고문 등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미묘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를 통한 지배이다. 김혜란에 따르면, “식민주의는 서구 유럽과 미국의 문학과 언어로 표현되는 문화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특정

서사를 말할 수 있는 권력'을 독점한다."[18] 그렇기 때문에 김혜란은 "탈식민주의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필요하고, 식민주의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를 움직이는 힘"[19]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탈식민주의 또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현재를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적 상황으로 파악한다. 즉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진 후에도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영향력을 탐색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관점은 정치적, 경제적 지배, 종속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문화적, 정신적 억압, 종속 관계를 파헤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둔다.[20]

따라서 탈식민주의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피식민지의 과거를 가진 국가, 민족, 부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거 식민통치 제국이 통치기간 동안에 지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부여한 정체성이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왜곡된 정체성 인식이 독립 이후 현재까지도 제국주의 정신적 문화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지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B. 오리엔탈리즘과 동양인의 타자화

오리엔탈리즘은 원래 유럽의 특정 문화와 예술에서 동방 취향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가리키던 말이었으나, 사이드(Edward W. Said)에 의해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자,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제도 및 스타일'로 정의되었다.[21] 서구 국가들은 동양은 비합리적이고 열등하며 도덕적으로 타락되었고, 이상하지만 서양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숙하고 정상이라는 식의 인식을 만들어오면서 동양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해 왔다.

현대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의 선상에서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에 앞서 식민지 지배를 낳고 정당화하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파악되고 있다.[22]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주시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

[18] Kim-Cragg, *Story and Song*, 13.

[19] Kim-Cragg, 11.

[20]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페미니즘과 지식생산*, 101.

[21]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385.

[22] 강남순, 383.

매체와 문화양식들을 통해 동양을 열등하고 착취 가능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며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을 구별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서구가 주체를 서구라 놓고, 동양을 '타자화'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산물이 오리엔탈리즘이며, 결국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구의 조직적 역사적 의도적 지배라고 사이드는 주장한다.[23]

성차별의 차원으로 '타자화'의 문제를 제기한 학자는 프랑스의 여성 작가 시몬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였다. 그녀는 1949 년 출판한 그의 저서 *제 2 의 성*에서 이제껏 여성이 남성들에 의해 타자화된 '제 2 의 성'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하였다.[24] '제 2 의 성'이란 '제 1 의 성'인 '남성'들에 의해 '타자'(the other)로 규정되고 밀려난 성이 '여성'이란 의미이다. 이처럼 '타자'는 보부아르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고, 그 후에 페미니스트들과 탈식민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수용 및 발전되었다.

보부아르는 성차별 문화의 원리가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이 자신들을 '주체'로 놓고 여성들을 '객체'로 보는데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녀에 의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이 본래부터 열등해서가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성 자신들을 유일한 인간이자, 역사의 주체로 놓고, 여성, 노예, 자연을 자기의 외부 즉, 타자(the other)로 규정한 것이다.[25] 이렇게 주체가 객체를, 다시 말해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자신들 집단(주로 권력 집단)에서 배제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그들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바로 '타자화'이다.

그 이후로 '타자화' 개념은 탈식민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수용 및 발전되었다. 가부장제 안에서 남성이 여성을 타자화 시켰듯이, 식민주의 안에서 서구 식민 지배자들은 기득권 확장을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한다. 이때 '타자(the other)'는 자신들과 다른 속성을 지닌 부류, 계층 및 인종을 일컫는다. 탈식민주의자들의 지적에 의하면, 식민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

[23]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trans. 박홍규 (서울: 교보문고, 1991), 32.

[24]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286.

[25] 강남순, 286.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중심에 놓고, 자신들에 속한 모든 것에 인종적, 문화적, 도덕적, 지적, 기술적 우월성을 부여하였으며, 반면에 비서구 피지배 국가와 민족에 속한 모든 것을 '열등한' 것으로 돌리며 타자화시켰다.[26]

C.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

정체성(identity)은 흔히 동일성, 주체성, 자기확인, 귀속의식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정체성 연구에 기초를 마련한 에릭슨(Erik H Erikson)은 정체성에 관하여 "이는 주로 개인이 지니는 자기의 존재증명, 또는 참된 자아, 자기의 단일성이나 연속성, 불변성, 주체성 등의 감각을 말한다. 나아가서 일정한 인격이나 그 외의 대상과의 사이에서, 또는 일정한 집단이나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이 경우 정체성은 공통된 가치관의 공유라든지 긍정되는 역할을 매개로 하여 획득되는 연대감과 안정감에 기초하여 형성된 자기존중 또는 긍정적 자기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한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화권의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방식의 총체로서 그 특정한 문화권의 구성원 대부분이 함께 느끼는 바, 그 문화가 지니는 존재증명인 동시에 단일성이나 연속성, 불변성, 주체성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27]라고 말하였다.

즉, 정체성은 여러 차원에서 정의 될 수 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개인 차원의 정체성으로 주체적인 자아 감각이다. 둘째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는 질문처럼 정체성을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슈나 사안에 대한 도덕적 기준, 종교적, 정치적 입장에 대한 태도나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태도 등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정의한다. 셋째로, 인종이나 성(sexuality) 같은 외적인, 육신적인 기준도 정체성을 정의하는 기준이다. 앞서 말한 가치관이나 신념은 개인의 선택할 수 있는 정체성인데 인종이나 성은 선택할 수 없는 주어진 정체성이다. 넷째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 교사와 학생 등과 같이 관계에서 나오는 정체성이 있다. 다섯째로, "나는

[26]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페미니즘과 지식생산*, 93.

[27] Erik H.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Y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Inc., 1980), 18-25.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같이 어떤 문화권, 세대, 집단, 민족, 나라 등과 같이 소속감에 관련한 정체성도 있다.

에릭슨(Erick Erikson)의 자아발달 이론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와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정체성의 성공적인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가 그 개인을 인정과 지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약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 사회에서 열등한 것이라는 통념이 이미 형성되어 있을 때 그 개인의 노력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개인과 사회간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에서 이미 표준적이지 못하며, 열등한 것이라는 통념이 형성된 특질들은 집단의 특질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 인종, 지역, 성적취향 등은 집단으로 묶일 수 있는 것들이다. 개인은 이러한 특질들을 노력으로 바꾸거나, 고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의미있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의 정체성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집단의 정체성은 주어진 사회의 세력관계를 반영한다. 기득권 세력들이 가진 특질들이 우월한 것으로, 그들이 타자로 돌리는 나머지 부류의 특질들은 열등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예를 들면, 백인종에 대한 우월성 부여는 인종주의를 낳았고, 하나의 피부 색깔이 다른 피부 색깔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히 개개인의 고유함을 정의하려는 시도로 파악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다양한 권력과의 불균형적인 교화과정 속에서 생산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28] 즉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이를 구분하고, 우월과 열등의 가치를 부여하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파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 연구를 하면서, '집단적 정체성' 연구의 의의는 주류 집단이 아닌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 단지 관념적,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

[28]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385.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2 장의 심층면담 결과 해석에서 보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차별을 느끼는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상반된 답변을 하였다. '하루 24 시간 일주일에 7 일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참여자가 있었던 반면, '차별은 없다'고 단호히 답한 참여자들도 많았다. 후자의 참여자들 가운데, 영어 소통이 어려워 한인사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1 세대 코리안 어메리칸 참여자들은 미국인들과 경쟁에서 경험하는 실질적 차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1.5 세대나 2 세대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1 세대들 앞에서 자신들이 미국인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셋째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인교회에서 강조하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회의 땅 미국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친절을 베푸는 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우리가 더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에게 차별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 조차 눈감아 버리게 만든 것 같다.

그러나 미국 주류사회에 아시안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고, 이것은 실질적인 직접적 차별이며, 이것은 차별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타자화의 심리적 억압과 함께 행해진다.[29] 그리고 둘 다 코리안 어메리칸 정체성 혼란과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이 받은 높은 교육 수준에 비해서, 직장에서 인종차별적 의식(racism)은 전문직 아시안 어메리칸들의 고용 안전과 계층적 지위마저 위협한다.[30] 그들은 그들과 같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백인 동료들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직장 조직에서도 소외된 처지가 될 확률이 높고 유리천장에 부딪히거나 실직할 위험이 크다.[31] 차별에 대한 마틴 마저(Martin Marger)의 설명은 차별이 특정한 집단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

[29] Marger, *Race and Ethnic Relations*, 81.

[30] Paul Ong, *The State of Asian Pacific America: Economic Diversity, Issues, and Policies; A Public Policy Report* (LA: LEAP Asian Pacific American Public Policy Institute and UCLA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1994), 40-41.

[31] Keiko Yamanaka and Kent McClelland, "Earning the Model-Minority Image: Diverse Strategies of Economic Adaptation by Asian-American Women," *Ethnic and Racial Studies* 17 (September 2010): 86.

> 차별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성원 집단 전체에 적용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안토노브스키(Antonovsky)가 설명하기를 차별은 개인이 바라고 기대하는 보상과 기회를, 그들의 능력이나 공로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것이다.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차별적 행동들이 기대될 때, 개인들은 그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고 느낀다. 그렇게 해서 편견과 차별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 지역사회와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표준과 사회화의 과정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진다. 명백히, 이러한 설명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집단적 환경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심리학적 이론들과 다르다.[32]

미국에서 나고 자란 2 세대 코리안 어메리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한국 문화와 접점없이 미국 문화에서 살아왔고 당연히 자신의 정체성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모적 특질로 정체성을 판단하는 미국인들에게 의해 계속적으로 인종적 고정관념(racial stereotype)의 포로가 되어 그들의 미국인 정체성(Americanness)을 부정 당하는 실정이다.[33] 그리고 인종적 고정관념은 이들 코리안 어메리칸들을 동양인(orientals)으로 보게 만드는 오리엔탈리즘의 문제로 이어진다.[34]

위의 내용을 종합 요약하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고자 특정 소수 집단에 차별을 가하는데, 이 테두리가 집단적 정체성이고, 이 특정 집단의 정체성은 주류 기득권 집단의 정체성에 비교해서 주류 집단의 특성과 다른 점이 모두 낯설고 열등한 것으로 돌려진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라고 살아가는 주류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당연한 것처럼 선택하고, 차별을 당하는 소수 집단의 사람들은 타자화를 내면화하여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권력관계를 위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 정체성으로 소수 집단의 개개인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들에게 낯설고 열등하다는 가치부여가 담긴 타자화의 억압을 가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정체성을 세울 수 있을까? 문제점을 제시한 탈식민주의의 여러 신학 가운데서 타자성, 환대의 신학에서 새로운 정체성 인식의 방향성을 제시하려한다.

---

32 Marger, *Race and Ethnic Relations*, 81.

33 Myoung-Hye Kim, *Korean-American Identity in the Postmodern Condition: Narrative Accounts of the Politics of Identity*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92), 176.

34 Kim, 176.

D. Korean American Christian 정체성 - 타자화에서 타자성으로

탈식민주의학자 호미바바(Homi Bahbah)는 “모든 문화는 단일하지도, 영원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 혼종성을 이해한다면 제국·식민지 관계에서 지배 정당성은 모호해진다”[35]고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탈근대 시대(Post modern era)는 과학문명과 자본의 발달로 문화적 상호 침투가 가능한 지구촌 시대이다. 이렇게 갈수록 균질해져가는 사회를 사는 전세계의 사람들의 정체성도 과거의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탈근대 정체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 시대는 어떤 것이 나의 고유한 것이며, 다른 이들의 고유한 것인지 문화적 경계가 모호해져가고 있기에 인종과 고유한 문화에 기반하여 진짜 정체성(authentic identity)을 확인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36]

그러므로 미국사회가 외모만을 가지고 코리안 어메리칸의 인종적 정체성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권력의 관계 우위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라고 파악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제껏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타자화의 의도에도 둔하였고, 행해지고 있는 억압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듯하다. 즉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타자화의 억압이 있을수록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인종적, 문화적, 세대적으로 더 순수하고 균질한 집단을 추구했다. 즉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타자화의 압력에 대한 부지불식간의 순응이다. 이를 테면, 1 세대는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1 세대끼리, 1.5 세들은 1.5 세들끼리, 2 세들은 2 세들끼리 더 쪼개어 뭉치려했다. 코리안 어메리칸 교회들은 그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stage)을 제공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타자화의 억압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쭈그러들게 했다. 언제나 미국인처럼 보이기엔 낯설어 보이고, 뭔가 열등하게 느껴지게 했다. 이는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져서 코리안 어메리칸 정체성에 대해 절망감과 혼란을 심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되지 못한 타자화의 억압은, 코리안 어메리칸들 안으로 내면화되었다. 언어적, 문화적, 세대별로 순수한 균질 집단을 추구하느라 나뉘어졌던 코리안

---

[35] David Huddart and Homi K. Bhabha,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trans. 조만성 (서울: 앨피, 2011), 76.

[36] Kim, *Korean-American Identity in the Postmodern Condition*, 175.

어메리칸들은 이제 서로를 향해 배타성을 보이고, 미국 사회의 타인종 집단들에 대해서도 어떤 교류와 소통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수동성과 획일성을 보이게 되었다. 억압과 차별을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코리안 어메리칸들끼리 우열을 따지고 반목하는 양상도 보이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코리안 어메리칸 교회들은 타자화의 억압에 둔감한 메시지와 성경해석으로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이 더욱 타자화된 모습으로 살고, 타자화를 내면화하도록 방치한 감이 있다.

이러한 타자화의 억압으로 인한 코리안 어메리칸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 배타성, 열등감, 획일성, 수동성의 부정적 정체성의 징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어떻게하면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모든 세대의 소통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타민족을 향하여 포용적으로 열린 정체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 방향성을 탈식민주의 관점의 '타자성의 신학'에서 제시하려한다.

데리다(Jacques Derrida)가 '타자성' 개념을 내놓기 이전에, 새로운 '타자' 이해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철학자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가 있다. 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2 차 세계대전 중에 극심한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레비나스는 서양 철학의 '존재론'에 기반을 둔 사고가 제국주의 폭력의 뿌리임을 파헤쳤다. 그는 서구 존재론의 주된 특징을 모든 것을 동일자(the same)로 환원하는 전체성(totality)으로 규정하고, 이는 사물의 외재성(exteriority)를 간과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유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37] 즉, 언제나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이해한 타자, 내가 이해한 세상을 '나 자신'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자와 세상은 '나'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엄연히 존재하는 외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존재론'적 사유방식은 언제나 타자와 세상을 나에게 복속시키려 하고 그것이 '전체성'이다. 레비나스는 서구인의 전쟁과 폭력의 속성이 이렇게 개인을 전체에

[37] 배경임,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타자성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문화교류연구* 6, no. 4 (November 2017): 122.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38] 전쟁과 폭력, 타민족 말살의 현실은 모두 타자를 거부하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한다.[39]

레비나스에 의하면, '나 중심적인 주체'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개인이 진정한 주체성을 잃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체를 주체답게 만드는 요인은 서구 형이상학에서 주장해왔던 정합성과 자기 동일성에 입각한 선명한 자기 완결성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윤리적 감수성이다.[40]

그러므로 레비나스는 타자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자고 주장한다. 레비나스의 타자는 동일자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관계를 맺는 타자, 절대적 다름으로서 존재 자체가 타자성인 타자이다.[41] 즉 진정한 타자는 개인이 자신의 인식의 대상으로 타자를 볼 때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이는 주체 이전에 타자가 먼저 상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타자를 먼저 인식하고, 그런 타자의 얼굴에 반응하는 윤리적 주체로서 자기를 정립하게 된다는 것이다.[42]

이렇게 레비나스는 주체 중심의 서구철학을 비판하며 타자를 위한 타자철학을 윤리화하면서, 타자는 동일자(나, 주체)로 환원할 수 없는 '타자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43]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타자성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타자와의 관계 한복판에서 이미 비상호적 관계로, 즉 동시성과 정반대의 관계로 모습을 드러낸다. 타인으로서 타인은 단지 나와 다른 자아가 아니다. 그는 내가 아닌 사람이다. 그가 그인 것은 성격이나, 외모나 그의 심리상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다름(타자성)때문이다. 그는 예컨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이다.[44]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레비나스의 '타자성'을 주장하게 될 때, 더 이상 식민주의적 인식인 타자화의 압력에 억압되지 않을 수 있다. 타자화된 대상은 이방인으로 여겨지지만,

---

[38] 배경임,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타자성 연구," 121.

[39]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143.

[40]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 vol. 25 (June 1995): 164.

[41] 배경임, 123.

[42] 에마누엘 레비나스, *신, 죽음 그리고 시간,* trans. 김도형 et al (서울: 그린비, 2013), 267.

[43] 임희모, "타자와 환대의 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6 (April 2008): 199.

[44]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trans. 강영안 (서울: 문예출판사, 2001), 101.

‘타자성’을 정체성으로 주장하게 되면 절대적 다름으로서 주류 미국인들의 인식에서 벗어난 엄연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레비나스의 ‘타자성’은 데리다에 의해서 더욱 발전된다. 데리다는 자아의 이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타자화’와 같은 방법으로 타자를 배제할 때 일어날 ‘자기 파괴’를 경고한다.[45] 데리다는 대표적인 예로 이성이 행하는 자가면역을 들었는데 이는 생명체의 면역체계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다. 데리다가 볼 때 서구의 사유는 자가 면역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타자성의 도래를 통제하거나 방어하고자 했는데, 이는 생명체가 자가 면역을 통해 모든 이질적인 요소를 죽임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보호 기제와 같다.[46] 그러나 계속되는 자가면역은 결국 생명체가 자신의 면역체계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를 죽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데리다에게 타자는 주체의 지배권 밖에 있는 자이다.[47] 그리고 데리다가 제안하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환대로서 이는 타자를 자기 밖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자기 안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공존을 모색한다.[48] 레비나스의 환대와 비교하자면, 자신의 문을 열고 타인을 나의 손님으로 대접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 레비나스의 환대였다면, 데리다는 손님이 누구냐고 묻거나 환대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타자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건적인 환대일 뿐이라고 지적한다.[49] 그에 의하면 조건적인 환대에서는 여전히 ‘타자’는 ‘자아’를 가정한 보편타당한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자아에게 통합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건적 환대에서는 여전히 동일화 폭력이 행사된다고 할 수 있다.[50]

---

[45] 자크 데리다, *불량배들: 이성에 관한 두 편의 에세이,* trans. 이경신 (서울: 휴머니스트, 2003), 307.

[46] 손영창, “데리다의 환대론에서 절대적 타자의 외재성과 제삼자의 위상에 관하여,” *범한철학* 83 (December 2016): 210.

[47] 자크 데리다, 307.

[48]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트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no. 21 (April 2011): 407.

[49] 강영안, *타인의 얼굴*, 189.

[50] 강영안, 190.

궁극적으로 데리다는 우리가 '타자성'에 노출된다는 것은 주체의 능력 너머, 다시 말해서 '주체의 자율성 없는 자유'로서 근본적인 수동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타자의 도래에 있어 주체가 더 이상 주권적인 존재로 머물 수 없다고 주장한다.[51] 다시 말해, 데리다가 부각시킨 환대의 개념은 타자와 살아가기 위한 필요 요건이며 이것이 없다면 타자의 관념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진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52]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데리다의 '타자성'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미국 주류 백인들에게 '타자성'을 환대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때, 타자화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미국사회가 코리안 어메리칸의 '타자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기방어적인 것이며 결국 자기파괴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타자화의 억압으로 타자화를 내면화하지 않았는지 엄중히 돌아보아야 한다. 만약 우리 안에 다른 인종, 문화, 세대 등의 '타자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성이 이미 자리잡았다면, 코리안 아메리칸 역시 자기파괴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51] 자크 데리다, *불량배들*, 307.

[52]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현상과 인식* 118 (December 2012): 145.

Chapter IV
Korean American Christian – 환대의 공동체를 향하여

전 장인 3 장에서 탈식민주의 신학의 이론을 살펴보며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이 이제껏 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타자화에 기초한 식민주의적 관점 속에서는 주류 백인 이웃으로부터 온전한 환대를 받을 수도 없고, 코리안 어메리칸이 다양한 인종의 주변 이웃들을 환대하는 환대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요컨데, 타자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타자성을 주장하는 환대의 주체가 되는 길이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이론적 바탕에 근거하여 본 장에서는 내가 섬기는 한인교회가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실천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한다.[53] 특히 심층면담에서 발견했던, 기존의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 정체성에 보이는 부정적 요소들을 바꾸기 위하여 실천적 방향성과 방법들을 탈식민주의 신학적 연구의 도움을 받아 제시하려한다.

A. Korean American 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코리안 어메리칸의 정체성 혼란은 정체성을 소속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탓이 크다.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나는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를 고민해 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 주류집단의 타자화의 억압에 너무나 취약한 고민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체성은 어느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정체성은 고착된 불변의 사태가 아니라 관계와 환경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이다. 인종 뿐만 아니라 문화, 언어, 역할, 직업, 관계, 정치적 신념, 종교, 성적 취향 등으로 보여지는 개인의 정체성을 염두에 둔다면 다각적이고 다방면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기준은 무수히 많다. 특히나 미국은 다양한 정체성을 주장하고 인정하는데 민감하라고 교육한다. 그런데 아시아인을 향한 ‘타자화’의 시선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즉 인종적 구분으로 주류와 낯선 부류를 구분한다. 쉽게 말해, 아시아인이면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전부 동양인으로 묶어버린다.

[53] 많은 코리안 어메리칸 교회가 있지만 우선 내가 목회하는 1 세대 교회부터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인 교회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니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 그런식으로 나눠버리면 한국인 분류에도 맞지 않고 미국인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수 많은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구를 하면서 가까이 보니 심지어 각 개인들이 다 달랐다. 미국에 몇 살에 왔는가? 부모가 1 세인가, 1.5 세인가 혹은 2 세인가? 영어와 미국문화에 언제 노출 되었는가? 성장시기에 주변에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는가? 타인종 커뮤니티 안에서 살았는가? 배우자가 한국인인가 혹은 타인종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개인이 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다양한 코리안 어메리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로 묶을 수 있는 확실하고 고정된 정체성은 없다.

코리안 어메리칸 내부적으로도, 순수성을 지향하며 배타적으로 코리안 어메리칸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할 때,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계속 더 세분되어 쪼개어질 수 밖에 없었다. 세대 간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타자화의 억압에 더욱 무방비 상태가 되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이러한 타자화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환대의 '타자성'을 정체성으로 주장하는 크리스천의 공동체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통계에 따르면 2019 년 기준 미주 한인교회는 3,500~4,300 여 개 정도로 추산되며, 미주 한인 중 기독교 신자 비율은 무려 71%이다.[54] 통계에서 잡은 '신자'가 가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쳐도, 이는 1 세대 코리안 어메리칸 열 명 중 일곱 명이 기독교 신앙 또는 문화와 관련성 있게 살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들의 자손인 1.5 세, 2 세대들도 직, 간접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환대를 지향하는 포용적 정체성 안에 거의 모든 코리안 어메리칸을 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무수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코리안 어메리칸들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공동체성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환대의 정체성은 차이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공동체성이며, 나누는 정체성이 아니라, 어떤 타자를 만나든지 '타자성'을 인정하고 더하는 정체성이다. 그렇게 무수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선굵게 묶어나가는 정체성이다.

---

[54] 장열, "이슈 기획: 한인 이민교회 이대로 좋은가, 성장과 변화 〈1〉," *LA 중앙일보*, last modified October 15, 2019, http://m.de.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682364.

환대를 지향하는 포용적 공동체성이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함께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세대와 언어와 문화, 그리고 교단 같은 신앙 전통 등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나누기만 하던 기존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야한다. 또한, 기존의 타자화의 억압과 억압적 차별로 인해서 위축되고 부정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코리안 어메리칸의 특성들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특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회들이 힘써야 한다. 이때 이전에 개교회 위주, 교회 안 프로그램과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한인교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 한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교회들 간의 연합뿐 아니라 한인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최종 단계는 지역 커뮤니티까지 반경을 반드시 넓혀서 시 공동 행사나 카운티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목회자 한 사람의 인식의 변화와 결단만으로는 안되고, 교회 리더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목회자와 목회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2 장의 심층면담의 분석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교회 리더들도 일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포용적이고 열린 한인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있다. 무엇이 금란교회와 비슷한 상황에 있을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실천적 대안일지 모색하다가, 공예배 설교들을 통하여 먼저 성도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회 리더들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B. 환대의 공동체로 정체성 인식전환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설교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에게 환대 지향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고양하는 설교는 한인교회에서 선포되는 기존의 설교들과 크게 다르게 느껴진다. 일단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이제껏 내가 익숙했던 한인교회의 전통적인 설교 주제들에 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발견했다. 이제부터 '환대 지향의 공동체'를 주제로 설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탈식민주의 실천신학적 접근에 의지하여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설교 목표를 분명히 기억한다. 본 설교는 금란교회 주일 대예배 설교 초안으로서, 설교 제목은 '이방인이 아닌 환대의 공동체'이며, 설교 목표는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의 환대 지향 공동체성을 고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란교회 청중들은 한 번도 이런 주제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처음 들어본 성도들이 ‘환대’라는 주제에 마음을 조금 열게 되고, 다음 번에 이 주제에 관한 설교를 또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았다.

환대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배타성을 극복해야 한다. 내가 섬기는 교회도 다른 한인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창립한 한국인들이 예배하고, 한국인들을 선교하는 교회라는 인식이 교인들 사이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타인종 미국인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외에 세워둔 교회 간판부터 한국어로 쓰여있고, 예배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전단지나 주보도 모두 한국어로 적힌 것을 쓴다. 내가 부임한 후 타인종 외국인이 예배에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영어 통역기를 마련해 놓고, 이를 광고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환영한다고 했지만, 이미 문턱이 너무 높다. 또 타인종을 초청하는 선교 프로그램이나 타인종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이 역시 교회 예산이나 여건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특히 제직들이 아직 엄두를 못내고 성도들이 “우리는 영어를 못해요” 하고 손사레를 치는 형편이다.

질적 연구 결과에서 보았듯이,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배타성은 언어의 한계로 인한 것과 미국 사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도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 정작 삶은 가정과 한인교회와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에 뭔가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에서 다인종 미국인들을 접촉한 경험에서 인종차별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경험이 상처가 되어 다인종에게 교류와 소통의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언어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언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다양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영어는 늘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아쉽고, 아직 필요가 절실하지 않아서라고 보인다. 한편 코리안 어메리칸이 교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우리를 교류를 할 만한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즉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두려움도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와 경험의 한계로 위축되고, 상처받은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배타성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의 저서 *공정한 환대*에서 인류에 봉사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는 하나님의 목회라고 한다.[55] 교회는 그런 목회에 참여하도록 초청받는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목사의 목회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한 봉사를 하도록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러셀이 오랫동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왜 교회는 그 내부에 있는 것을 위한 일에만 열중하고, 그래서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나 이 세상에서 일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은 잊어버렸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기에 그녀는 우리의 환대의 테이블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였다.[56] 저자가 지적한 교회의 폐쇄성은 배타성의 벽을 넘지 못하는 내가 시무하는 교회의 문제적 상황을 그대로 비추어준다.

그녀는 세상을 향한 봉사의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환대'를 강조하였다. 이는 그녀 자신이 백인 여성으로 오랫동안 할렘가의 흑인 회중 교회를 목회하였던 삶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러셀은 환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경적 근거를 들고 있다:

> 바울이 고린도전서 7:29-31 에서 요청한 것은 기독교 교인들이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in, but not of, the world)이 되라는 것이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계속 참여하여야 하지만, 그들은 마치 새우주창조(new creation)가 이미 도래한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요청은 자주 무시되고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세상에 있지는 않고 세상에 속해"(of, but not in, the world)살고 있다. 그들의 생활들, 구조들, 계급 분파들, 성적인 경향들, 그리고 편견들이 모두 자기들이 속해 있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와 평화 그리고 환대를 확대하는 일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증언하지 않으니, 그들은 '세상 안에 있지' 않다.[57]

저자는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Korean American 성도들과 이민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천 공동체로서 세상의 타자화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크리스천 공동체를 향하신 뜻인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코리안 어메리칸

---

[55]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 trans.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42.

[56]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42.

[57] Russell, 42-3.

크리스천들이 환대 대신에 배타성을 택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한,' 즉 타자화의 억압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교회, 즉 크리스천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일 수가 없다.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해서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 1 세대들은 이제까지 낮선 미국 땅에 정착하는 어려운 과정을 예배와 신앙으로 일구었다고 고백한다. 그 신앙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타성을 넘어서 다인종 미국 이웃들과 사회에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설교와 후속으로 이어질 설교들을 통하여, 금란교회의 성도들이 배타성을 허물어뜨리고, 환대를 지향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둘째로, 나는 설교 본문을 포스트 콜로니얼 해석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기존의 획일적 성서해석 방식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개인중심적이고 영적인 면에 치우친 설교 주제 이상을 찾아내기 힘들다.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은 전통적인 그리고 표준적이라고 여겨지는 성서해석은 기득권자, 지배자 중심적인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민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으로부터 탄생하였다.[58] 이미 존재하는, 전통적, 보편적 해석이라고 여겨지는 성서 해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비평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는 설교의 본문을 룻기 1:1- 17 절로 잡았는데, 이 본문은 이제껏 많은 한국교회 설교자들에 의해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은총의 주제로 설교되어 왔다.[59] 전통적이고 서구 백인 중심적인 성서해석은 다양한 문화와 환경 안에 살고 있는 세계 곳곳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다. 이러한 획일적이고 현재 우리들의 삶과 동 떨어진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기 힘들게 한다. 이는 곧 영혼 없는 획일적 크리스천들을 낳는다.

획일성은 이번 질적 연구 결과에서 세 번째 범주로 도출된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부정적 정체성의 징후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미국에서 만난 대부분의 이민 1 세대 크리스천들이 '예배는 한국에서 드리던 식'으로

---

[58] 박흥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2.

[59] 이방 여인인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믿음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내용이 전통적인 설교 주제를 이룬다.

드리는 것을 표준으로 생각했다. '전통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한국교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도입 할수록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는다. 이민자 성도들의 이러한 획일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던가 지역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예배나, 선교 프로젝트, 봉사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는 것 자체를 틀에 벗어난 것, 안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이러한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틀에 박히고 획일적인 신앙 관습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긍정하고, 포스트 콜로니얼 성서해석 방법을 통하여, 크리스천들과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나는 성서 속의 이방인에 대하여 유대교 뿐 아니라 초대 기독교에서도 배타적인 태도가 전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전통이 미국과 같은 서구 기독교 국가에도 이어져 본국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놓고 비기독교 문화권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타자화시키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룻기를 포스트 콜로니얼 성서해석의 시각을 가지고 편견을 내려놓고 읽어보면,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성서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 이해는 '나(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든 특성을 표준과 다른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타자화의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 누구나, 언제든, 이방인이 될 수 있기에 이방인의 존재적 특성이 주류인(majority)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혈연, 인종, 문화 등 인간의 외연에 집착하며 주류인과 비주류인(이방인, minority)을 나누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게 보시는지 알려주신다. 나의 설교를 통해 금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란다.

셋째로, 코리안 어메리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부드럽게 다루고, 위로와 치유가되는 설교가 되게 할 것이다.

2 장의 질적 연구 결과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 정체성의 부정적 양상으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두 번째 범주로 도출되었다. 타인종으로부터 받은 차별의 경험이 이러한 심리적 억압을 낳았음이 밝혀졌다. 두 번째 원인은 미국 주류 백인종의 타자화를 내면화한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그들 사이에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차별하면서 억압된 경험이었다. 이

부분은 내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 온 문제로서, 이미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 들왔을 때 성도간의 관계에도 상대적 우위로 차별과 소외를 되풀이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면서 제대로 된 성도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성도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할 때, 교회 정착이 어려워지고 잦은 교회 이동의 악순환에 빠지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하면서 내가 발견한 것은 이러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미국 땅에서 살면서 받는 타자화의 억압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교회나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이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을 바로 알아야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연구 과정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미국 주류사회의 백인들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차별의 경험을 준 대상이다. 또 하나는 낯선 이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 주는, 배울점이 많은 대상이다. 타자화의 억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대상에게서 친절함을 받았다고 느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혼란을 바로 잡는데, 데리다의 관용의 개념과 환대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김광기의 설명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데리다에 의하면 관용은 “자비의 한 형태”로 “최강자의 논리”편에서 베푸는 일종의 시혜로 “환대의 조건”이라기 보다는 “환대의 한계”이다. 관용은 타인을 향해 선한 얼굴로 가장했지만 심중으론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즉 주체는 일정한 선을 그어 넣고 일정 부분까지만 타자를 용인하겠다는 태도다. 이를 데리다는 “주권의 선한 얼굴”(the good face of sovereignty)이라 표현했다.[60]

데리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주권은 높은 자리에서 타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널 그냥 내버려 둘게. 넌 못 봐줄 정도는 아니야. 여기 내 집에 네가 있을 자리는 있어. 하지만 절대로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이게 내 집이라는 사실을...[61]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면 서양인들이 유색인종들에게 보이는 친절은 관용이다. 이때 관용은 내가 주체인 내 영역에 들어온 낯선 타자를 용인하는 자세일 뿐이다. 그러나 코리안

---

[60]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141–42.

[61] 김광기, 142.

어메리칸들은 이 땅에 합법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얻고 세금을 내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같은 국민이지 이방인이 아니다. 이방인을 용인하는 겉으로 보이는 친절에 감동하고, 그 뒤에 숨겨진 타자화의 억압이라는 불의를 보지 못한다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나올 바른 해결책을 찾을 길은 요원할 것이다. 요컨데,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우리를 향한 타자화의 시선은 부당하고 불의한 것이다'며 우리는 환대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해결로 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만큼 코리안 어메리칸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열등감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당당한 요구는 '차이'에 대하여 식민주의적 가치부여를 떨쳐버리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때 기득권자의 시선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시선이다. 교회들에게 '환대의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한 레티 러셀은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환대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우리가 살고 있는 탈식민시대의 세계는 사람들이 인종, 국적, 언어, 성별, 계급, 성적 성향, 능력, 그 밖에 여러 요소들을 가로질러 서로 이웃이 되는 방법과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는 혼성 사회(hybrid society)의 세계다. 또한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가부장적 사고와 사회 정치적 구조에서 차이가 배격의 범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차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해방시키는 길이됨을 찾도록 우리를 도와준다.[62]

차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믿는 크리스천들의 특권이다. 그런 면에서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이 신앙이 바탕이 된 건강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한인 사회에 전체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를 포함해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차이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은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러한 환대를 지향하는 신앙인들이 모이는 곳이 곧 교회이며 공동체라는 것을 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중심에 둘 때 나와 다름이라는 차이는 우월이든 열등이든 가치 부여가 된 의미를 갖게 되기 쉽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환대의 둥근 테이블에 초청된 사람들 간의 차이는 우열의 가치 부여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우열의 가치 부여가 떼어진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서로의 모습과

---

[62]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16-17.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환대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선언하는 성서의 주제"라고 정의한 윌리암 존슨(William Stacy Johnson)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였다.[63]

이런 맥락에서 나는 룻기를 본문으로 한 나의 설교에서 룻이 '이방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웃)으로 품겠다고 선언하는 부분을 부각시켰다. 코리안 어메리칸들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의 원인이 타자화의 억압과 억압적 차별임을 인지한 후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타자화의 억압적 차별이 제거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위해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결집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단시일에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타자화와 차별의 억압에 눌리려서 스스로를 주변인(the marginalized)으로 몰지 말고, 주체적 환대의 공동체가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웃)이 될 것이다'라는 룻과 같은 주체적 선택과 고백을 하는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 정체성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룻이 유다 땅에서 겪는 타자화의 억압과 차별을 보면서, 또한 그녀가 그런 억압과 차별에 물러서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공감하고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신앙이 바탕이 된 주체적 선택을 보면서, 타자화의 시선으로 낮아진 자존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 환대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고 억압을 환대로 갚을 수 있다는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넷째로, 환대를 실행하는 차원에서도, 수동성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고양하는 설교가 되게 한다.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갖는 부정적 요소로 현상 유지의 수동성은 질적 연구 결과 네 번째 범주로 도출된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

[63]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61.

살펴 보았듯이,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수동성은 타인종과의 교류 면에서, 그리고 세대간 소통 면의 두 가지 주제군으로 묶여질 수 있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어느 누구도 우리 지역사회의 타인종 미국인들과 교류가 필요없다거나, 1.5 세, 2 세와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말에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성도는 없다. 한인들이 좀 더 자원봉사나 지역 봉사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하지만, 바람으로 그칠 뿐, 막상 관련 활동이나 행사들은 눈에 많이 띄지 않는다. 이민자의 삶이 바쁘고 고단하다는 이유도 크다. 또 교회의 공예배들에 참석하고 주일 교회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간이나 열정 부족의 문제 또는 성도들의 자율적 실천보다는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강조하는 한인교회의 신앙 전통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성도들 가운데, 주중에 교회 밖에서 살 때에는 자신의 삶의 환경 안에서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김혜란의 ‘이야기로서의 성서’는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수동성을 극복하고 주체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과 방법을 잘 제시해 준다. 김혜란의 *Story and Song: A Postcolonial Interplay between Christian Education and Worship* 에서 저자는 성서의 권위, 성서 안의 내용 해석과 전달 과정에 있어서 제국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스며들고 발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그 대응책으로서 성서를 문헌으로서만이 아니라 구전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소수 민족들과 인종들이 타자화의 압력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김혜란에 의하면 “식민주의는 식민지가 된 국가와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통제함으로써 지배를 강화하며, 대신에 서구 문학과 언어로 표현되는 문화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특정 서사를 말할 수 있는 권력”[64]을 독점하여왔다. 그런데 만약 성서가 책으로 기록되기 이전에 누구나 말하고 말로써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하면, 해석의 권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또한 이야기로서의 성서를 인정할 때, 비서구권 나라이든 서양이든, 과거 식민지

---

[64] Kim-Cragg, *Story and Song*, 13.

국가이든, 주류가 아닌 타자(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공동체이든 성서를 자신들의 상황의 지평에서 재해석할 자유를 갖게 된다.

러셀의 성서 읽기 지침도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주체적 성서 읽기 훈련에 유익할 것이다. 우리가 타자화의 억압에서 벗어나 환대의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탈식민화하라는 것이다. 또한 환대의 신학을 재구성하면서 성서를 읽을 때 다음 네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1) 의심의 해석학을 동원함으로써 여성과 동성애자 등 억눌린 집단의 '본문에 희롱당함'(textual harassment)을 막기 (2) 가부장제를 인식하고 대결하기 (3) 성서적 명령과 오늘 현실 사이의 모순점 찾기 (4) 약속(commitment)의 해석학. 여기서 약속이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성서본문 안에 하느님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두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65]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기 전에 '마음을 탈식민지화'하라는 뜻은 우리의 심령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뜻일 것이다. 그 권력은 아시안 어메리칸을 타자화 시키려는 주류 백인들의 차별적 억압의 힘일 수도 있고,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힘일 수도 있으며,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회자의 말씀 해석에만 의존하고 순종하라는 교회 권위주의의 힘일 수도 있다. 그러한 억압들은 성도들을 현상 유지적인 수동성에 빠지게 하고, 각 개인이 오늘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뜻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안에서 각 사람을 환대하시고, 그로 이웃을 환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각 성도가 그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환대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신다. 즉, 이 말은 각 성도들에게 말씀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각 성도가 갖는 말씀 해석의 자유와 실천의 자율성에 대하여 나의 설교를 통하여 격려하고자 했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환대의 정체성을 지향하며 룻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웃으로 품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관심'과 '돌봄'인데,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또 각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찾아가도록 격려할

---

[65]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39-41.

것이다.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 개인이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행하며 환대의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고, 각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지역 사회를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을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면 환대 지향의 공동체성이 코리안 어메리칸 정체성으로 자리잡을 날이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Chapter V

결론 및 제언 (Conclusion and Suggestions)

2018 년 6 월 25 일자 TIME 사회면에 "Words to Live By"(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말들) 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를 읽으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것은 미국 각지에 사는 흑인 가정 여덟 곳에 가서 그 가정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흑인으로서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당부하는 것을 취재한 형식의 글이었다. 그 중 한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은 세상을 살 것이다. 여느 아버지와 같은 양육의 부담에 더하여, 나는 내 아이를 인종차별적인 세상을 어떻게 대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큰 꿈을 꾸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꿈을 이루려면 다른 (주류 인종) 아이들보다 두 배 이상 노력하고, 두 배 이상 더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다. 흑인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세상은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조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일러주어야 한다."[66]

엄밀히 말하면, 아시안 어메리칸도 흑인 어메리칸과 마찬가지로 비주류 인종으로 인종차별을 받는 대상에 들어간다. 어쩌면 미국에 정착한 역사나 숫자 면에서 흑인보다 더 소수 집단이 아시안 어메리칸이다. 그런데 코리안 어메리칸 부모 가운데 위의 흑인 아버지가 한 것과 같은 말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부모가 있을까 반문해 보았다. 거의 없다. 무엇이 다른 걸까? 기사에 실린 흑인 아버지들은 일단 이 세상이 인종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자녀가 자라면서 학교, 직장, 사회, 이웃관계 등 삶의 구석 구석에서 차별로 인한 불이익과 불공평함을 당하게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잔인한 현실을 자녀에게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고,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대로 알게 하려 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어떨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자녀는 흑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인종차별

[66] Eddie S. Glaude Jr., "Black Fathers Share Their Fears and Hopes for Their Sons in America Today," *Time,* last modified June 15, 2018, https://time.com/longform/black-fathers/.

등 불합리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몸에 익힐 것이며, 가장 아픈 부분을 아버지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와 유대관계가 굳건한 성인으로 자랄 것이다.

또 반문해 보았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한국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한걸음 더 나아가 코리안 어메리칸 대다수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인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이런 분명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 주지 않고 있는걸까? 혹시 거기서부터 코리안 어메리칸 정체성 혼란이 시작되고, 한인 사회 스스로도 인정하는 여러 부정적인 정체성의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하면 나의 목회를 포함한 한인 교회의 목회가 코리안 어메리칸의 건강한 정체성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어질 수 있게 선도하고, 더 나아가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환대의 정체성을 품게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결과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 결과,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 정체성에 혼란내지 갈등이 있음을 의미하는 부정적 요소로 배타성, 억압으로 인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획일성,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비주체적 수동성의 4 가지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이는 모두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지적하는 '타자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로 연관지을 수 있다.

탈식민주의의 '타자화의 억압' 개념으로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정체성 혼란과 부정적 양상을 보니 개별적인 문제 같았던 것들이 다 한 가지 원인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것이 보였다. 또한 타자화를 내면화함으로써 같은 코리안 어메리칸 사이에서도 어떤 갈등이 작용했는지가 보였다.

내가 섬기는 이민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정체성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심층면담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구체적 경험을 면밀히 듣고 분석하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민교회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은 긍정적인 가능성은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의 목회의 어떤 면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강화시키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실천적인 대안들을 찾기 위해 우선 나의 설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 역시 포스트 콜로니얼 성서해석을 포함하여 탈식민주의의

관점 연구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였다. 그것은 배타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열린 커뮤니티로서 환대의 공동체성 추구, 둥근 환대의 식탁에서 나와 이웃이 만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타자화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임을 알게하고, 성경을 주체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음을 알게하여, 현상유지의 비주체적 수동적 경향성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이 나의 설교의 목적과 방향이 되었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하여 인종차별 면에서도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분명히 보게 되었다. 또한, 대졸자 취직이나 임금에 관한 각종 통계와 지표만 보아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주류 백인들도 인정하고, 다른 유색인종들도 인정하는 이 사실을, 그동안 코리안 어메리칸들만 유독 인정하고 싫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혹시 그 원인이 무조건 노력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좋은 것만 보고 감사하라는 예배 강단의 메시지에도 있지 않았는지 그 동안의 나의 설교 메시지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또 나도 포함되는, 코리안 어메리칸 1 세대들이 인종차별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음으로써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타자화의 압력이 작용하는 미국 사회에 살아가게 되는 자녀세대인 1.5 세대와 2 세대들에게 그 부분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헤쳐나갈 방법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1 세대와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의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들자고 할 수 없다는 것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타자화의 억압에 위축되고 세대 간에 동질감도 상실되어 가는 코리안 어메리칸 정체성을 건강한 공동체성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길은 환대의 코리안 어메리칸 공동체성을 제시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러셀이 제시하는 새로운 환대는 공정한 환대를 가리킨다. “공정한 환대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쪽 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 의식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다.”[67]

[67]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56.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지난 삼 년 간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에서의 배움을 돌아볼 때, 처음 시작할 때의 나와 지금 이 시점의 나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목회자로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제자들을 세운다는 목회 소명을 가지고 살아 왔다. 지금도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 지난 배움의 과정과 프로젝트를 쓰는 과정 가운데 다 새롭게 고민해 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관점에서 또 넓은 시야에서 그것들을 보게된 나 자신의 성장에 감사하게 되었다.

대다수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들로 이루어진 한인 사회는 불신과 루머와 배타성과 소외 등의 문제로 얼룩져있다. 인종 차별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부모세대와 그들에게 인종차별은 없다고 말하면서 아픔을 감추는 자녀세대가 공존하는 성도들와 가정들이 나의 목회 현장이다. 목회자로서 그들의 아픔에 귀를 열고 눈을 열지 않으면 성도들도 나에게 그들의 아픔과 현실을 감추려 할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나야말로 너무나 현상 유지적이고 획일적인 목회를 해오지 않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은,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정체성으로 환대의 공동체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목회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 것에서, 그 제안한 것들을 금란교회가 실천하는 과정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나 시행과정에서 착오나 부작용이 있는지, 또 긍정적인 변화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한다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다른 미국내 한인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란 제국주의의 본령인 나라에 살면서, 타자화의 억압에서 벗어나, 타자성을 가진 존재로서, 환대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과 교회되기를 소망한다.

부록 I: 설교 원고
(Appendix I: Sermon Manuscript)

[2020년 (주일) 룻기 1: 1-17 이방인이 아닌 환대의 공동체]

오늘 본문은 룻이라는 여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대로 모압 여인, 즉 성경에는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기독교 사전에는 '이방인'을 보통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놨어요. Non-Jewish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oreigner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 흥미롭게도 1.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2. 유대인이 선민의식에서 그들 이 외의 여러 민족을 얕잡아 이르던 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외국인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다 경멸와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세상 사전에서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인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후, 그 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후, 이제는 그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는 구별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이겠죠. 민족과 출신 나라에 상관이 없죠. 누가 더 우월하고 비천하다 그런 의미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 거기에 다소 무시와 수치의 의미를 담고 쓰는 듯합니다. 내가 이방인이라고 여길 때 수치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를 때 그들을 다소 무시하는. 그런데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룻기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룻 한 명만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한 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출신 한 사람이 그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룻의 남편과 그의 부모 형제들입니다. 모압 지방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누가 외국인입니까? 룻의 남편과 그의 부모 형제이죠. 그들은 오랜 기간동안 모압 땅에서 외국인이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유다 땅에서는 룻이 외국인이요, 이방인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즉, 나오미도, 룻도, 그 누구도, 인생을 살다보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본국인

이 되고,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본국인일 때 내가 더 잘나지고, 이방인일 때 갑자기 더 못나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것으로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은 그런 잣대(본국인-이방인)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룻은 유다 땅에 가면서 모압 본국인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이방인이 되었어요. 낯선 땅에서 게다가 자신을 비유대인이라고 멸시하는 취급을 받으며, 과부이자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가난한 일용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룻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눈여겨 보고 계셨어요. 그의 범사와 함께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기지 않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걸음마다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아마 그 당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손 들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룻은 이방인 이잖아요? 우리는요? 도와 주셔도 우리를 훨씬 더 도와 주셔야죠." 했을 거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을 것 같아요. "룻이 이방인이라구? 너희 눈에 이방인이겠지. 나의 눈에는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내 백성이란다."

시 25: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 34:9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그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되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고, 강대국에 멸망하고,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고... 유대 민족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 앞에 그들을 보호해주지도, 특혜를 주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방인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인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 맥락에서는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사랑에서 떠난다면 이방인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의지한 룻은 당시 유대인이 어떻게 보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인지,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살펴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구약 같은 경우 유대인 저자들을

통하여 쓰신 것이라, 유대인의 시각으로 쓰여지거나, 유대인 입장의 뉘앙스가 담겨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방인이라는 단어 같이. 그것에 유의하지 않고 읽다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나도 모르게 주인공에 이입하게 되어서, 주인공 입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성경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크리스천이지 유대인은 아닐 뿐더러, 유대인 자체가 무슨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우를 범해왔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 자신을 유대인에 이입해서 읽게 되었어요. 나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 외국인은 좋지 않은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 문화와 언어와 전통이 나(=크리스천 나라)와 다른 민족. 뭔가 잘못된 거야. 성경의 기준대로 하자면,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 빼고) 이방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 땅에 1세대 이민자로 살면서, 이방인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이라고 하지,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이지 않습니다.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Korean American, Asian American이 미국 사회에서 아직도 동양인으로,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불이익 당할 때 속상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나 또한 나보다 더 마이너러티인 사람들을 향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안좋은 의미를 담아 쓰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룻과 같은 상황의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외국인, 비크리스천 문화권, 비영어 문화권의 사람이라는 단어에 나부터 위축되지 않고, 나도 이런 이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소외의 의미를 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룻의 환대 지향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룻이 스스로 이방인이 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녀는 유다 땅에 이주하면 여러 불이익과 차별적 시선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유다땅의 이방인이 된 것은 그녀가 오히려 포용적인 열린 삶을 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애초에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압 며느리인 룻을 두고 가려 했어요. 룻이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 이방인 아니에요. 자국인이에요. 그런데 룻이 말합니다. 16절을 보세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돌

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잃고, 자신을 이방인으로 멸시할 땅에 가게 될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품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땅, 유다의 백성을 자신의 이웃으로 품습니다. 품을 결심을 했기에 가겠다고 한거죠. 여러분, 룻은 주체적으로 이방인이 되길 선택한 거에요. 억지로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한 마디로 주체성이 있는 거죠. 왜 이방인이 될 선택을 했죠? 유다 백성을 자신의 이웃으로 품으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려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러한 선택을 한 룻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룻과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크리스천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과의 관계도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려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룻이 왜 몰라요? 이방인으로 대우받게 될 거. 힘들고 괴롭죠. 좋은 마음 가지려다가도 인간의 성정으로는 한 두 번 모멸적 말이나 대접 받으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 것 취소하고 모압땅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고, 주체적으로 이웃을 품는, 환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환대는, 이웃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룻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미국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외국인의 삶이라 표현하세요. 영주권도 시민권도 있는 분들이. 또 심지어 40-50년 사셔서 영어도 잘 하는 분들도. 그런데 그런 낯선이 취급을 받는 불리한 처지임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웃을 환대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밖으로는 지역 사회까지도 환대로 품는. 그러니까 더 쉽지 않은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마이너러티(minority) 취급을 받는데요, 우리가 환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마이너러티가 환대한다고 하면 조금 우스워보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룻의 상황이 정확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의 정체성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미국이

라는 큰 나라에 살면서, 이웃을 품고, 환대하며 살 수 있을지 두 가지 어렵지 않은 기본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환대는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문제로 꽉찬 사람은 이웃을 품어 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내 이웃에, 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아픔과 고민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둘째, 환대는 돌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 가운데 살다보니,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자칫 간섭하는 것이 될까봐,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웃의 작은 도움이나 배려 만으로도 하루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실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이 그러는 것도 고마운데, 여러 사람들이 노력과 정성을 모아, 나를 환대하는 경험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사는 코리안 어메리칸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개인의 힘은 미약해도, 교회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이웃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탤런트 가운데 김명국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아, 그 사람 할 지 모르는 탤런트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백혈병에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음이 그의 간증입니다:

> 김명국(44)씨의 여섯 살짜리 아들 영길군은 2003년 백혈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3년 전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했다. 그러다 완치된 줄 알고 퇴원했으나 재발해 다시 입원한 상태였다. 친구를 볼 수도 없고, 뛰어 놀 수도 없었다.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속에 매주 일요일을 기다렸다. 주일 오전 7시면 항암치료센터 앞 데스크 위에는 어김없이 초코파이와 요구르트 몇 개가 올라왔다. 그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꼬박꼬박 챙겨 먹던 영길이가 어느날 어머니 박귀자(45)씨에게 물었다. "엄마 이 초코파이는 누가 가져다놓는 거예요?" "엉, 나중에 엄마가 간호사 선생님에게 물어볼게." 영길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코파이를 봉지를 뜯고 요구르트 병에 빨대를 꽂았다. 빵을 한 입 베어물고 요구르트를 조금씩 마셨다. 박씨는 생각했다. '누군가 초코파이 하나 가져다 주는 것에도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그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는 서울대병원 내 교회 전도대가 매주 환아들을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아버지 가슴에 초코파이를 먹는 아들의 모습이 깊이 박혔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이 맛있게 먹던 파이의 그 생생한 감각을 잊지 못한다. 어느날 아들이 박씨에게 부탁했다. "엄마, 저 교회 데려다주세요." 휠체어를 혼자 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영길이는 결국 2005년 2월 숨졌다. 그리고 부부는 아들에게

> 초코파이를 나눠주던 교회에 손을 잡고 나가기 시작했다. "저희 아들에게 누가 직접 전도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나눠주는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먹었어요. 스스로 교회에 갔고요. 영길이는 그랬던 거 같아요. 아이가 그처럼 맛있게 먹던 초코파이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병석에 찾아와 기도하고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주던 교회가 너무 고맙더군요." "투병하던 영길이가 병원 휴게실에서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던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그 덕분에 영길이가 교회를 다니고 그런 영길이 손에 이끌려 비신자였던 가족 모두가 신앙을 갖게 됐어요. 영길이가 천국에 간 후 저희 가족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간증할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김씨 부부는 현재 서울의 한 교회에 집사로 출석하고 있으며, 김씨는 2005년부터 장기 기증 단체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생나사)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월 거리에서 펼치는 장기 기증 캠페인에 10년 이상 참가하고 있고 50여 교회에서 간증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들은 말하기를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눈물 흘린 그의 경험이 장기 기증의 필요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어린 영길이의 영혼을 살렸습니까? 무엇이 육신의 자녀를 잃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김명국씨 부부를 교회로 인도하여 영혼의 살림을 받게 하였습니까? 어느 교회, 어느 성도가 병실마다 돌린 초코파이와 요구르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내 돈으로도 살 수 있는 초코파이와 요구르트가 아니라, '당신의 눈물과 아픔을 품어줄 우리(크리스천 공동체)가 있고, 그 환대는 곧 당신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환대하신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환대는 또 다른 환대를 낳습니다. 크리스천의 환대는 이런 것입니다. 미국 병원의 상황은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힘을 합쳐 조금만 연구하면, 얼마든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룻이 (자격 없는) 이방인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방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아무도 이방인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문지 오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차이를 이유로 이미 허물어진 벽을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벽이 없음을 믿고 손 내미는 환대의 삶으로 보여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금란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환대 지향의 크리스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록 II: 설교자 회고와 청중의 반응

(Appendix II: Preacher's Reflection and Responses of Congregations)

부록 I 에 게재한 설교를 내가 시무하고 있는 K 교회의 2020 년 4 월 19 일 주일예배 시간을 통하여 설교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영상얘배로 대체하고 있었던 터라 설교 영상을 보내기 전에 메시지로 오늘 설교의 목적을 간략히 알리고, 설교 후에 피드백을 듣고 싶으니, 원하는 성도들은 짧은 소감을 알려달라고 공지하였다. 본 부록에는 청중들의 소감들에 기초한 설교 반응과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실제 설교하며 느꼈던 나의 회고를 함께 기록하였다.

설교의 목적은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들의 환대 지향 공동체성을 고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K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탈식민주의 관점의 설교를 많이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새롭다거나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설교가 되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질적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야말로 오랫동안 타자화의 억압을 받아 온 사람들로서 여러가지 부정적 경험과 상처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이지, 주체적으로 이웃을 환대하자는 내용은 시기상조라고 나는 생각했다. 설교자로서 청중들의 이러한 상태를 고려하면서, 방향성을 잃지 않는 설교를 쓰는 것이 어려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내가 먼저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읽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내가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읽고 이해가되고, 은혜가 되어도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존에 익숙했던, 많이 들어왔던 전통적인 성서해석과 다른 관점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때,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 이해해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설교를 실재로 하던 날, 설교의 첫번째 초점을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은 미국에 사는 이방인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 두었다. 심층 면담을 하면서 '이방인' 이라는 단어가 코리안 어메리칸들의 마음속에 아프게 박혀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부분을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예상대로 청중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은 비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 국가 출신이 아닌 비백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이 청중들의 마음에 많이 와닿아하였다. 그들의 낮아진 자존감이 상승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설교의 두 번째 초점을 청중들이 주체성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데 두었다. 특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는 룻의 고백을 그녀의 주체적인 선택과 믿음이라는 각도에서 해석하면서 그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웃)이 될 것입니다' 라는 주체적인 고백과 같은 것임을 알기를 바랬다. 이러한 해석은 타자화의 억압을 내면화하였던 청중들의 시선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이었다. 그들은 룻의 주체적인 선택과 믿음을 통하여 크리스천의 주체성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였고, 주체성에 대하여 깨달은 만큼 크리스천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환대의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 듯 했다.

다음은 설교를 들은 K 교회 성도들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다.

청중	설교를 들은 K 교회 성도들의 반응
A	설교 용어들이 평상시와 달리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환대해야 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룻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니까 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와닿지 않았는데, 다음에 또 더 듣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B	룻의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시기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목사님들 설교나, 평상시 목사님 설교와는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짜임새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이민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넓을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한다는 말씀,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참 좋았어요.
C	룻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이방인이었지, 하나님의 눈에는 이방인이 아니었군요. 나는 하나님의 눈에 이방인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았습니다.

D	이민자로 살고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룻과 같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	말씀 중심으로 은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과 실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쉽지 않지만) 제시해 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F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듣던 설교와 달리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선했어요. (제가) 타국에 살아서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룻처럼 좀더 적극적인 자체로 (타인종)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G	미국에 살면서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찾고, 행하다보면,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네요.
H	(한인) 교회는 '이방인이 아니라 환대의 공동체!' 기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I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던 룻처럼, 나도 이민자가 아니라 외국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J	이방인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환란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K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움츠러들지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L	룻을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결단과 행동이 오늘날과 같이 어수선한 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환란의 때에 환란으로 인한 두려움에 눌려 살아야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심어주시는 말씀으로 그간의 내 마음에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M	30 년 이상 미국땅에 살면서 항상 나는 이민자다, 외국인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인이 아니다. 이 말씀 하나로도 남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더 적극적으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한다는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끔 이런 설교 들었으면 합니다. 이민자에게 힘이되는 설교요.

부록 III: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III: Informed Consent Form)

귀하는 "Korean American Christian 정체성 고양 목회를 위한 탈식민주의적 접근 제시: 시애틀 금란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김광균 목사의 연구 논문에 참여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의 김남중/김혜란 교수의 지도 아래 수행됩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김남중 박사 (njkim@cst.edu/ +1 ***-***-****), 김혜란 박사 (hyeran.kimcragg@utoronto.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Korean American Christian)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부정적 요소들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바른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기 위하여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약 한 시간 정도의 인터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귀하가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으로서 미국에서 살면서 교회 안팎에서 이제껏 경험하고 느낀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참여는 '코리안 어메리칸 크리스천의 바른 정체성 확립과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교회를 비롯하여 미국 내 한인 교회들의 성도들이 Korean American Christian 으로서 정체성 형성 및 고양을 위해 교회의 예배, 친교, 특별행사 등의 프로그램들이 개선, 발전 될 수 있을지 모색하는데 귀하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아래에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로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김광균 kdavidkim@naver.com / +1 ***-***-****

1) 위험/유익/정보의 비밀 유지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이며 본 논문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 철저한 보안 가운데 보관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가족이나 다른 교인들에게 절대 비밀에 부칠

것입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연구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진행 중에도 제한된 수의 연구 관련자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주, 부심 교수님들입니다: 김남중/김혜란 교수.

모든 인터뷰 내용과 개인정보는 연구가 끝난 후 파기될 것입니다. 혹시 연구 결과가 출판되거나 학술대회에서 토론될 때 귀하의 신분을 드러내는 어떤 정보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연구 참여 혹은 참여철회

귀하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 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3) 연락처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김광균의 전화번호+1 ***-***-**** 혹은 kdavidkim@naver.com 로 연락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9-03]입니다.

4) 연구 참여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심사위원회 회장의 연락처인 +82 (***) ****-**** 혹은 viastar@hanmail.net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연구참여자의 서명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연구 참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

참고문헌

Bibliography

[한서]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박흥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서울: 예영 B&P, 2006.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페미니즘과 지식생산.* 서울: 문학과학사, 2006.

[영서]

Erikson, Erik 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Y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Inc., 1980.

Kim-Cragg, HyeRan. *Story and Song: A Postcolonial Interplay Between Christian Education and Worship.* NY: Peter Lang, 2012.

Kim, Myoung-Hye. *Korean-American Identity in the Postmodern Condition: Narrative Accounts of the Politics of Identity.*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92.

Marger, Martin N. *Race and Ethnic Relations: American and Global Perspectives.*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A Division of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Inc., 2014.

Ong, Paul. *The State of Asian Pacific America: Economic Diversity, Issues, and Policies; A Public Policy Report.* LA: LEAP Asian Pacific American Public Policy Institute and UCLA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1994.

[번역서]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Translated by 박홍규. 서울: 교보문고, 1991.

에마누엘 레비나스. *신, 죽음 그리고 시간.* Translated by 김도형, 문성원, and 손영창. 서울: 그린비, 2013.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Translated by 강영안. 서울: 문예출판사, 2001.

자크 데리다. *불량배들: 이성에 관한 두편의 에세이.* Translated by 이경신. 서울: 휴머니스트, 2003.

Huddart, David., and Homi K. Bhabha.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Translated by 조만성. 서울: 앨피, 2011.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저널]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 vol. 25 (June 1995): 147-166.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현상과 인식* 118 (December 2012): 141-170.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트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no. 21 (April 2011): 391-418.

배경임.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타자성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문화교류연구* 6, no. 4 (November 2017): 115-131.

손영창. "데리다의 환대론에서 절대적 타자의 외재성과 제삼자의 위상에 관하여." *범한철학* 83 (December 2016): 197-230.

임희모. "타자와 환대의 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6 (April 2008): 189-211.

정애성. "[이 책을 말한다 2] 공정한 환대 – 환대에 대한 주변부의 상상력." *기독교사상* 651 (March 2013): 106-112.

Yamanaka, Keiko., and Kent McClelland. "Earning the Model-Minority Image: Diverse Strategies of Economic Adaptation by Asian-American Women." *Ethnic and Racial Studies* 17 (September 2010): 79-114.

[웹사이트]

장 열. "이슈 기획: 한인 이민교회 이대로 좋은가, 성장과 변화 〈1〉." *LA 중앙일보,* Last Modified October 15, 2019. http://m.de.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682364.

Glaude Jr. Eddie S. "Black Fathers Share Their Fears and Hopes for Their Sons in America Today." *Time.* Last Modified June 15, 2018. https://time.com/longform/black-fathers/.